

제2기 제주학 '시민 아키비스트' 심화과정 강좌



탐라의 역사·문화·삶을 기록할
'시민 아키비스트'
전문인력 양성

교육 기간

2023. 3. 23. ~ 5. 11.

10회, 매주 목요일 19시~21시, 4월 7일·22일 현장 강의

교육 장소

제주학연구센터 강의실 '마레'

제주시 임항로 278, 2층

제2기 제주학 '시민 아키비스트' 심화과정

탐라의 역사·문화·삶을 기록할
'시민 아키비스트'
전문인력 양성

제2기 제주학 '시민 아키비스트' 심화과정



탐라의 역사·문화·삶을 기록할
'시민 아키비스트'
전문인력 양성

제2기 제주학 '시민 아키비스트' 심화과정

교육 기간

2023. 3. 23. ~ 5. 11.

10회, 매주 목요일 19시~21시, 4월 7일·22일 현장 강의

교육 장소

제주학연구센터 강의실 '마레'

제주시 임항로 278, 2층

교육과정

01	3.23. (목)	기록 주제 선정과 시민참여형 아카이브 구축	조정현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02	3.30. (목)	시간의 기록, 제주 역사와 삶 기록하기	안현미 스토리AHN 대표
03	4.7. (금) 13시-15시	기록학, 문헌정보학 그리고 지역학 아카이브	이정호 제주대학교 도서관 팀장
04	4.7. (금) 15시-18시	현장 강의 - 제주대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제주대학교 도서관 및 박물관
05	4.13. (목)	육지해녀 기록과 마을 기록관(박물관) 상상해 보기	김창일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사
06	4.20. (목)	제주4·3기록 발굴과 보존, 활용	양정심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07	4.22. (토) 13시-17시	현장 강의 - 민속오일장	한승철 제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08	4.27. (목)	지역사 관점에서 영상기록과 활용	김동만 한라대학교 교수
09	5.4. (목)	제주어 구술채록을 활용한 기록의 가치와 실행 방법	김미진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10	5.11. (목)	시민 아키비스트 주제 발표 및 토론 / 수료식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장 현혜림 센터 전문연구위원

• 수료증 발급: 70% 이상 수강 시 수료증 배부

• 특전: 수료 후 아카이브 구축에 참여하는 시민기록관으로 활동

목차

기록 주제 선정과 시민참여형 아카이브 구축 11

조정현(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시간의 기록, 제주 역사와 삶 기록하기 31

안현미(스토리AHN 대표)

기록학, 문헌정보학, 그리고 지역학 아카이브 45

이정효(제주대학교 도서관 팀장)

육지해녀 기록과 마을 기록관(박물관) 상상해 보기 67

김창일(국립민속박물관 학예사)

제주4·3기록 발굴과 보존, 활용 131

양정심(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지역사 관점에서 영상기록과 활용 145

김동만(한라대학교 교수)

제주어 구술채록을 활용한 기록의 가치와 실행 방법 163

김미진(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제2기 제주학 '시민 아키비스트' 심화과정

타라의 역사·문화·삶을 기록할
'시민 아키비스트'
전문인력 양성



기록 주제 선정과 시민참여형 아카이브 구축

조정현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기록 주제 선정과 시민참여형 아카이브 — 구축

기억에서 기록으로,
기록을 문화유산으로!

조정현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2023.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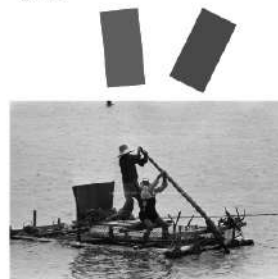
JRI 제주학연구센터

기억에서 기록으로, 기록을 문화유산으로

기록 주제 선정과 시민참여형 아카이브 구축

목차

1.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
2. 어떻게 기록하고 공유할 것인가?
3. 시민참여형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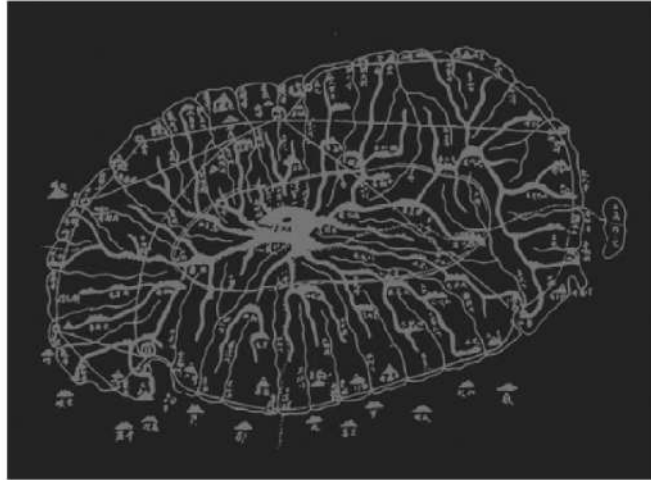


JRI 제주학연구센터

기억에서 기록으로, 기록을 문화유산으로

기록 주제 선정과 시민참여형 아카이브 구축

1. 지역 아카이브는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



JRI 한국기록학회

기억에서 기록으로, 기록을 문화유산으로

기록 주제 선정과 시민참여형 아카이브 구축

기록물이란 무엇인가?

- 사적인 기록과 공적인 기록
- 종이(지류), 사진, 전자파일 등 망라
- Records: 현용 기록물(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산, 보관, 이용하는 기록)
- Archives: 비현용 기록물(현재는 활용되지 않으나 영구 보관, 보존 대상이 되는 기록)

JRI 한국기록학회

기억에서 기록으로, 기록을 문화유산으로

기록 주제 선정과 시민참여형 아카이브 구축

기록물 생산 및 관리의 원칙

- 진본성: 생산 주체 및 명시 시점에 생산되었는지 증명 가능
- 신뢰성: 내용이 사실을 증명하고 이후에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 확보
- 무결성: 기록의 형식과 내용이 변경되지 않고 온전히 유지
- 이용가능성: 물리적·논리적 위치를 찾을 수 있고, 재현·해석이 가능

JRI 한국기록학회

기억에서 기록으로, 기록을 문화유산으로

기록 주제 선정과 시민참여형 아카이브 구축

지역학 아카이브 시민 기록가의 기록대상 선정 기준

- 고유성: 지역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유무형 대상에 대한 조사와 기록화
- 전파론: 본래의 원형 전승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원형이 남게 되는 문화현상
→ 대표적인 사례: 제주말, 포제 등
- 독립발생설: 지역의 토착적 환경 속에서 생성된 지역 고유의 개성적 역사와 문화

JRI 한국기록학회

기억에서 기록으로, 기록을 문화유산으로

기록 주제 선정과 시민참여형 아카이브 구축

제주 도민만이 기록할 수 있는 제주의 고유문화-문전제



문전제 유래

- 제주 무속의 문전본풀이
- 제주 가정신앙의 한 형태가 확장된 것
- 제사에 따라온 잡귀잡신을 위한 것
- 제사에 찾아온 옷대 조상신들을 위한 것
- 기타

JRI 제주기록문화연구원
Center for Jeju Studies

기억에서 기록으로, 기록을 문화유산으로

기록 주제 선정과 시민참여형 아카이브 구축

제주 도민만이 기록할 수 있는 제주의 고유문화-본향당 굿문화



“본향당이란 제주사람들, 특히 제주 여인네를 영혼의 동사무소, 요즘 말로 하자면 주민센터예요. 제주 여인네들은 자기 삶에서 일어난 모든 것을 본향당에 와서 신고한답니다. ‘아기를 낳았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사고가 났다, 돈을 벌었다, 농사를 망쳤다, 육지에 갔다 왔다, 자동차를 샀다, 우리 애 이번에 수능시험을 본다, 우리 남편 바람난 것 같다, 이런 모든 것을 신고하고 고해바칩니다. 제주 신의 중요한 특징은 신과 독대 한다는 점입니다. 제주의 신을 할망(할머니)이라고 해요. 할머니에게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는 자애로움이 있잖아요. 여성은 소문 내지 않고 자기 이야기와 고민을 들어줄 사람을 필요로 하는 심리가 있거든요. 답을 몰라서가 아니죠, 그런 하소연을 함으로써 마음의 응어리를 푸는 겁니다. 심신의 카운슬링 상대로 할망을 모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순이 시인의 대답)

JRI 제주기록문화연구원
Center for Jeju Studies

기억에서 기록으로, 기록을 문화유산으로

기록 주제 선정과 시민참여형 아카이브 구축

사진으로 만나는 제주의 고유문화-포제(리사제)



제주의 마을공동체 제의에서 당굿의 쇠퇴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반면, 유교식 포제는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는 여러 행정기관의 지원과 남성 중심의 마을 운영이 강화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보다 구체적인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남성 중심으로 거행되는 포제이지만,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등 마을공동체의 주체들이 다함께 준비하는 마을공동체 제의이기에 사실상 토박이들을 중심으로 한 마을의 결속과 후속세대의 양성 등 긍정적 기능이 발휘되고 있어 그 전승력이 갈수록 강해지고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

JRI 제주지역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기억에서 기록으로, 기록을 문화유산으로

기록 주제 선정과 시민참여형 아카이브 구축

사진으로 만나는 제주의 고유문화-해녀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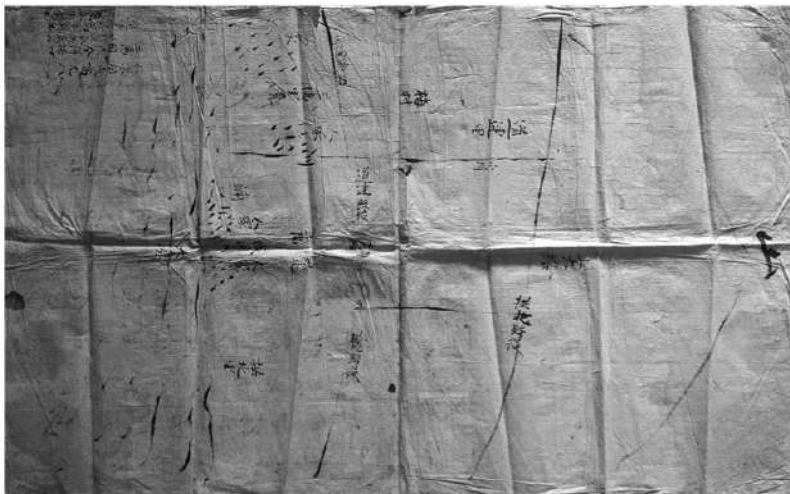
본 문헌자료의 저작권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습니다.

JRI 제주지역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기억에서 기록으로, 기록을 문화유산으로

기록 주제 선정과 시민참여형 아카이브 구축

사진으로 만나는 제주의 고유문화-마을문서



JRI 제주기록연구원
Center for Jeju Studies

기억에서 기록으로, 기록을 문화유산으로

기록 주제 선정과 시민참여형 아카이브 구축

사진으로 만나는 제주의 고유문화-갯일(양태장)



JRI 제주기록연구원
Center for Jeju Studies

기억에서 기록으로, 기록을 문화유산으로

기록 주제 선정과 시민참여형 아카이브 구축

사진으로 만나는 제주의 고유문화-제주 일노래(민요)



유튜브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jHDMx8ESCYo>

JRI 제주기록유산연구원
Center for Jeju Heritage

기억에서 기록으로, 기록을 문화유산으로

기록 주제 선정과 시민참여형 아카이브 구축

사진으로 만나는 제주의 고유문화-미륵불(서자복)



JRI 제주기록유산연구원
Center for Jeju Heritage

기억에서 기록으로, 기록을 문화유산으로

기록 주제 선정과 시민참여형 아카이브 구축

제주의 일상적 생활문화도 주목할 필요 있음

의식주 문화

- 제주 갈옷 등 의생활의 특성
- 제주 빙떡과 세미, 일상 음식과 의례 음식
- 제주 돌집과 거주관행의 특성(안거리 뺏거리)

생업과 경제생활

- 찾아보기 쉽지 않은 논농사와 밭농사 중심의 농업
- 해안지역 마을들의 반농반어(半農半漁)
- 제주도 민속오일장과 읍면 오일장

공동체적 생활 방식과 세시

- 마을회의 발달과 제주형 자치관행
- 당굿과 포제, 경로잔치(경로여행), 체육대회, 추석노래자랑 등
의 지역공동체 세시
- 마을과 읍면동을 넘나드는 갑장계 모임 등

JRI 제주기록문화유산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기억에서 기록으로, 기록을 문화유산으로

기록 주제 선정과 시민참여형 아카이브 구축

2. 어떻게 기록하여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공유할 것인가?



JRI 제주기록문화유산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1. 기억

기억은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해 보거나 듣거나 느낀 것이다.

기억은 원래 증인의 감각경험으로서 원초적인 형태로 증인의 감각 기관에 머물러 있거나 개념 작용을 거쳐 뇌에 저장된다.

이 단계에서의 '기억'은 증인 내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서 역사적인 가치는 없다.

기억은 시간이 지나 망각되거나 혹은 증인의 다른 개념 장치에 의해서 변질된다.

이 같은 원초적인 기억이 역사적인 증언으로서의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증인의 몸 밖으로 나와야 된다.

기억에서 기록으로, 기록을 문화유산으로

기록 주제 선정과 시민참여형 아카이브 구축

2. 기억과 구술에서 기록으로!

구술되거나 글로 기록될 때 비로소 그것은 역사와 관계를 맺게 된다. 역사가들은 이것을 '사료'라고 부른다. 기억은 이렇게 '기록'됨으로써 역사적 가치를 획득하지만, 덧가를 지불해야 한다.

** 여기서 구술사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억의 기록화는 주체에 따라서 바로 기록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구술과 타인의 기록으로 생산된다.

JRI 한국기록학회

기억에서 기록으로, 기록을 문화유산으로

기록 주제 선정과 시민참여형 아카이브 구축

글이나 말로 표현되는 단계에서 본의건 본의 아니건 축소, 변질, 왜곡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억과 기록은 동일하지 않다.

기억의 불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역사가는 다시 자기의 관점에 따라 기록을 해석하고 또 선별하면서 역사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 피에르 노라

JRI 한국기록학회

기억에서 기록으로, 기록을 문화유산으로

기록 주제 선정과 시민참여형 아카이브 구축

기억은 과거보다는 오히려 현재 지향적인 것이다. 그것은 언제나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서 출발하며, 과거의 현상이 아니라 현재의 현상이다.

다시 말해 기억은 과거의 경험이 밀랍판의 압인(押印)처럼 고정된 형태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시점에서 재구성되는 것이다.

→ 안병직

JRI 제주지역연구센터

기억에서 기록으로, 기록을 문화유산으로

기록 주제 선정과 시민참여형 아카이브 구축

- 집단적 기억의 매체로서 이야기(설화-신화, 전설, 민담) 문화
- 제주의 풍부한 신화와 전설-살아있는 신화와 제의(굿)
- 기억을 ‘튼내어’ 구술하고, 이를 기록하는 작업이 아카이빙
- 이야기를 통해 지역의 집단기억을 끊임없이 재생산→기록화



- 제주 신화 본풀이는 심방에 의해서만 전승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단골과 도민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새롭게 ‘이야기’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임.
- 기록이 축적되고 원활하게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면 의미화가 강화되고 마침내 문화유산으로 자리 매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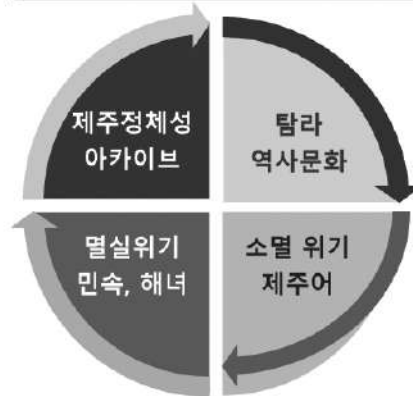
JRI 제주지역연구센터

기억에서 기록으로, 기록을 문화유산으로

기록 주제 선정과 시민참여형 아카이브 구축

탐라 제주의 고유성을 가꾸는 제주학 아카이브

신화의 섬, 살아있는 역사문화박물관



조사연구, 제주정체성 발굴, 확산

JRI 제주학연구소

기억에서 기록으로, 기록을 문화유산으로

기록 주제 선정과 시민참여형 아카이브 구축

“진정성” Authenticity
구심적 전승

VS

“무대화된 고유성”
Staged Authenticity
원심적 전승



JRI 제주학연구소

기억에서 기록으로, 기록을 문화유산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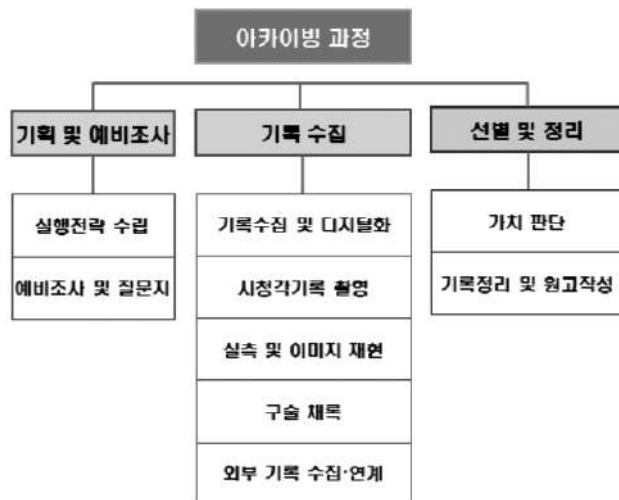
기록 주제 선정과 시민참여형 아카이브 구축



JRI 한국기록학회

기억에서 기록으로, 기록을 문화유산으로

기록 주제 선정과 시민참여형 아카이브 구축



JRI 한국기록학회

기억에서 기록으로, 기록을 문화유산으로

기록 주제 선정과 시민참여형 아카이브 구축

3. 시민참여형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 방법



JRI 한국기록학회

기억에서 기록으로, 기록을 문화유산으로

기록 주제 선정과 시민참여형 아카이브 구축

✓ 집단기억의 기록매체로서 ‘지역(마을) 아카이브’

- 누구나 말하듯이 기록할 수 있는
아카이브 설계와 구축
- 매체와 디지털 환경, 멀티미디어의
적극적 활용



JRI 한국기록학회

기억에서 기록으로, 기록을 문화유산으로

기록 주제 선정과 시민참여형 아카이브 구축

시민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 비전

- 학자 등 전문가의 시각이 아닌 현지적 시점에서 기록하는 지역 아카이브
- 누구나 쉽게 기록하고 업로드 할 수 있는 생활형 아카이브
- 일방적 업로드가 아닌 쌍방향 의견 제시와 수정이 이루어지는 살아 있는 아카이브
- 세대와 세대를 이어줄 수 있는 '전승'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지역 아카이브
-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애郷심을 고취할 수 있는 아카이빙

JRI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기억에서 기록으로, 기록을 문화유산으로

기록 주제 선정과 시민참여형 아카이브 구축

- 제주학연구센터 오픈 아카이브
- 자료 등록 양식에 따라 누구나 사진, 영상, 음원 등을 업로드
- 업로드한 자료에 대한 상세한 설명 작성(인용 표시 분명히!)
- 등록된 자료 감수(전문가 선정)
→ 수정보완 → 완료
- 지역(마을)과 일반에게 서비스 제공

- 누구나 자료를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지역과 주민을 소개하고 알릴 수 있는 역사문화 자료로 활용
- 지역정체성 확립 및 지역(마을) 박물관(전시관) 유물자료로 활용
- 다양한 작품과 축제, 관광 등을 위한 창작소재로 활용



JRI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기록 주제 선정과 시민참여형 아카이브 구축
-기억에서 기록으로, 기록을 문화유산으로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문화 아카이브

감사합니다!

기록화 계획

2023.3.30. 작성자:

1 기록화 목적 및 필요성

- 내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와 그 가치, 활용 가능성 등 기술
-
-

2 기록화 수행 방법

- 조사 기간: 2023.3.23 ~ 5.11.
- 조사 대상: 선정 주제 관련 문헌자료, 현지조사 자료, 현장 상황 자료, 관련 인물, 관련 사건 등
- 예비 조사
 - 선정 주제 관련 문헌 및 관련 자료 수집
 - 조사 계획 수립(질문지 작성 포함)
- 현지 조사
 - 선정 주제 관련 유무형 조사대상 답사
 - 선정 주제 관련 관계자 면담(인터뷰) 조사
 - 선정 주제 관련 기록물(사진, 회의록, 지도 등) 수집
- 현장 상황 조사
 - 선정 주제 관련 연행(포제 및 당굿 등 제의, 축제, 세시, 모임 등) 현장 조사
 - 주제 관련 실제적인 연행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대한 참여관찰
 - 디지털 매체(동영상, 스틸 사진, 녹음기 등) 적극 활용
- 조사결과 정리, 성과물 작성
- 다양한 매체, 플랫폼(아카이브 포함)에 공개

3 기록화 주요 내용

- 선정 주제의 역사, 유래, 변천 양상
- 선정 주제 관련 자료
 - 고문헌(고서, 고문서), 기사, 논문, 단행본 등 기록자료
 - 사진, 동영상, 음향 등 시청각 자료
 - 인터뷰 구술채록 자료 등
- 공개 매체에 맞는 원고 집필(텍스트와 자료, 사진 등을 효율적으로 편집)
- 아카이브 업로드, 각종 매체 공개
-

4 효과 및 활용 방안

- 조사 목적 및 필요성에 부합하는 결과물을 생산했는지 검토
- 아카이브, SNS 등에 탑재하여 해당 주제 관련 자료로 다양하게 활용
-

제2기 제주학 '시민 아키비스트' 심화과정

타라의 역사·문화·삶을 기록할
'시민 아키비스트'
전문인력 양성



시간의 기록,
제주 역사와 삶 기록하기

안현미
스토리AHN 대표

아카이브(ARCHIVE) 실전강좌

- 시간의 기록, 제주역사와 삶 기록하기 -

안현미 (스토리AHN 대표, 방송작가)

아카이브(ARCHIVE) 실전강좌

-아카이브의 필요성-

1. 1900년대 초반에 태어나 일제강점기, 제주 4.3, 민주화 운동 등
바람 타는 현대사들 온 몸으로 겪어온 어르신들은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의 작은 박물관
2. 삶의 텃밭에서 묵묵히 인생을 개척해온 그들의 삶을 구술채록함으로써
아래로부터의 역사 기록에 일조

아카이브 (ARCHIVE) 실전강좌

-아카이브의 필요성-

3. 한 세대가 서서히 저물고 있는 시점, 역사가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구술기록 더욱 더 중요
4. 어르신 세대와 지금의 세대 중간에 서 있는 5060세대인 경우, 구술채록에 더욱 효과적 (경쟁력 확보)

아카이브 (ARCHIVE) 실전강좌



- 스토리 AHN 아카이브 콘텐츠 -

- <서귀포 월평마을 만감 이야기>
- 한라봉, 레드향, 한라봉, 황금향 등의 만감류 농사 재배 장인들이 전하는 만감류 농사비법
- 여섯농가의 농사비법을 구술채록하고 그것을 토대로 스토리텔링한 문화 콘텐츠

아카이브 (ARCHIVE) 실전강좌



스토리 AHN 아카이브 콘텐츠 -

<물메물길따라 흐르는 79가지 이야기>

- 물메마을인 애월읍 수산리의 수산천을 중심으로 애월읍 유수암리, 장전리 사람들의 물 이용 역사를 구술채록으로 기록
- 어르신들의 물 이용 구술을 채록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스토리텔링한 문화 콘텐츠

아카이브 (ARCHIVE) 실전강좌



스토리 AHN 아카이브 콘텐츠 -

<한경면 조수1리 마을 이야기>

- 1988년 발간 이후 33년만에 발간한 마을지
- 물이 없어 연못을 만든 한경면 조수1리 마을의 사진으로 보는 역사(이추록 변해수다), 마을의 설촌역사, 자연. 문화 유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마을사업 등의 내용을 문서 기록은 물론 구술채록을 기반으로 제작

아카이브 (ARCHIVE) 실전강좌



스토리 AHN 아카이브 콘텐츠 -

<CONNECT, 가치를 잇다>

- 제주시소통협력센터에서 주관한 '소통'에 관한 콘텐츠
- 제주도내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기업들의 소통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채록하고 그것을 스토리텔링한 콘텐츠

아카이브 (ARCHIVE) 실전강좌



스토리 AHN 아카이브 콘텐츠 -

<삼촌들이 전하는 애월물이야기>

- 애월읍 광령리, 구엄리, 중엄리, 신엄리 사람들의 물 이용 역사를 구술채록으로 기록
- 어르신들의 물 이용 구술을 채록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스토리텔링한 문화 콘텐츠

아카이브 (ARCHIVE) 실전강좌



스토리 AHN 아카이브 콘텐츠 -

<숨겨진 역사 유랑 - 치마들격대>

-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일본 왜구와의 침입인 제주을묘왜변 (1555년, 조선 명종10년)관련 콘텐츠
- 민관이 하나되어 왜구를 물리친 제주 유일의 승전사를 발굴해, 스토리텔링한 콘텐츠 (제주연구원과 협업)

아카이브 (ARCHIVE) 실전강좌



스토리 AHN 아카이브 콘텐츠 -

<제주여성생애사 아카이브 영상 - 제주여성 허스토리>

- 제주여성이 제주역사이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제주 4·3, 한국전쟁을 겪은 80세 이상의 여성의 생애를 영상으로 아카이브한 콘텐츠
- 생애사를 통해 오랜 세월 제주여성에게 전해져 오는 제주여성의 DNA를 탐구하고 규명하는 작업

아카이브 (ARCHIVE) 실전강좌



제주여성 허스토리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콘텐츠상 수상 -

문화관광광부, 여성신문사, 여성문화네트워크 주최

'올해의 양성평등문화 콘텐츠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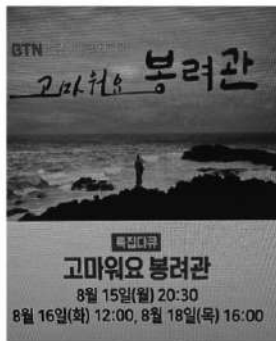
'82년생 김지영' '다큐멘터리 김복동' 역대 수상작품

'한 여성의 생애가 역사가 된다!'

제주발전을 위한 헌신을 했음에도 그림자로 존재해야했던

제주여성들의 삶의 궤적을기록으로 남기는 작업

아카이브 (ARCHIVE) 실전강좌



스토리 AHN 아카이브 콘텐츠 -

<BTN 불교방송 특집 다큐멘터리 - 고마워요 봉려관>

- 제주불교의 중심인 관음사를 창건하고 제주근대불교를 다시 일으켜 세운 봉려관 스님의 일대기를 다큐멘터리로 구성한 작품

- 80여년 가까이 알려지지 않았던 봉려관 스님의 생애 소개

:관음사 및 11개 사찰 창건과 증창, 항일운동, 여성과 사회운동 등

- 8.15 광복절에 맞춰 불교방송 BTN을 통해 방송

아카이브 (ARCHIVE) 실전강좌



스토리 AHN 아카이브 콘텐츠 -

<제주MBC 특집 다큐멘터리 - 숨겨진 역사, 을묘왜변 제주대첩>

- 1555년 명종 10년 제주에서 일어났던 제주 유일의 승전사 제주대첩

- 김수문 목사가 이끈 효용군과 4인의 치마돌격대가 하나가 되어
3일간의 대접전 끝에 승리를 거둔 대첩

-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 못지 않은 제주의 승전의 역사

아카이브 (ARCHIVE) 실전강좌

- 구술채록의 단계-

1. 예비조사: 생애사 주제와 관련 있는 문헌 조사, 현장 조사 필요
2. 인터뷰 주제 설정: 구술채록 할 인물 또는 주제 설정
(* 인터뷰 질문요지 작성)
3. 본 조사: 현지조사와 구술 인터뷰를 통하여 구술자료를 수집하는 단계
(* 녹음기, 휴대폰 녹음 기능, 영상 카메라 필요)

아카이브 (ARCHIVE) 실전강좌

- 구술채록의 단계 -

4. 자료 정리와 분석(구술전사): 수집된 자료를 녹취하고 분석하는 것
(*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으로 분석하는 자세 필요)
5. 스토리텔링: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글쓰기 하는 과정
(* 콘셉트에 맞는 내용으로 스토리텔링)

아카이브 (ARCHIVE) 실전강좌

- 인터뷰 사전 준비와 주의사항 -

1. 인물 선정에 따른 기초 자료조사
(학술서적, 책, 지인을 통한 추천 등을 통해 검토)
 - 특정 직업군, 역사적 사건 중심 경험자, 생활문화사 등
 - 인물 생애에 대한 기초 조사

아카이브 (ARCHIVE) 실전강좌

- 인터뷰 사전 준비와 주의사항 -

2. 인물 선정을 위한 절차

- 전화, e-mail, 현장방문 등을 통한 인터뷰 취지 전달
- 아무리 매력적인 인물일지라도 인터뷰 대상자의 의사가
확고하지 않으면 강권 절대 NO
- 인터뷰 대상자 외에 가족, 보호자의 참여 의사 체크

아카이브 (ARCHIVE) 실전강좌

- 인터뷰 사전 준비와 주의사항 -

3. 현장 조사 및 사전 인터뷰 진행

- 조사 목적에 적합한 내용 전달 가능자, 발음상태 등
(건강상태, 기억력 유무 확인 등)

4. 면담장소 사전 답사 및 선정

- 녹음상태 고려, 주변 소음 제거 가능한 곳 선정 등
- 영상 촬영인 경우, 사진 촬영 후 스태프와 논의

아카이브 (ARCHIVE) 실전강좌

- 인터뷰 사전 준비와 주의사항 -

5. 인터뷰 대상자의 채록 활용 동의서 필수

(조사집필 및 지적재산권 동의서)

(촬영동의서)

(출연료 영수증)

아카이브 (ARCHIVE) 실전강좌

- 인터뷰 사전 준비와 주의사항 -

-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정확히 기록하고 안내

: 책자형태, 온라인 제공, 전사물만 사용할 것인지,
음성도 사용할 것인지 등

: 영상 촬영일 경우 좀더 구체적으로 동의서 필수

아카이브 (ARCHIVE) 실전강좌

- 인터뷰 사전 준비와 주의사항-

- 음성 녹음 및 문자기록 자료 활용 동의서, 사진 자료 사용 동의서 등
(조사 집필 및 지적재산권 양도 동의서)
- 영상물인 경우, 촬영 동의서 (초상권 사전 활용서 등)
: 고령인 경우, 보호자 동의 필수

아카이브 (ARCHIVE) 실전강좌

- 인터뷰 사전 준비와 주의사항-

- 5. 인터뷰 일지, 질문지, 녹음기 등
 - 영상촬영일 경우, 카메라와 마이크 등 장비 일체
- 6. 사례비 - 출연료 영수증 (통장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등)
 - :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아카이브 (ARCHIVE) 실전강좌

- 인터뷰 사전 준비와 주의사항 -

7. 사전 인터뷰 후, 본격적인 인터뷰를 위한 질문지 작성
 - 영상 촬영일 경우, 촬영 구성안 작성
 - EX: 제주여성 허스토리 현계생님, 고순덕님 편 참고

아카이브 (ARCHIVE) 실전강좌

한 사람의 시간(時間)은
기록(記錄)으로 역사(歷史)가 된다.

- 스토리AHN -

제2기 제주학 '시민 아키비스트' 심화과정

타라의 역사·문화·삶을 기록할
'시민 아키비스트'
전문인력 양성



기록학, 문헌정보학,
그리고 지역학 아카이브

이정호

제주대학교 도서관 팀장



기록학, 문헌정보학, 그리고 지역학 아카이브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이정효

아카
이브

아카이브란

□ archives

참고와 연구목적으로 영구보존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기록보존기관에 위탁(deposit) 되거나 위탁을 위해 선별된 모든 공적·사적 기관의 기록들 (Schellenberg 1998)

□ Archives

통치하는 행위나 기록물을 담당, 보관하는 기관

- * 기록물의 집합체로서 형태적, 지적 기록물: archives
- 기록을 수집 보존 소통시키는 업무 담당 기관: Archives

행정기록물 vs. 비행정기록물

- 행정기록물 = 이관기록물
- 비행정기록물 = 역사기록물 = 수집기록물 = 매뉴스크립트 (manuscript)
- 현용기록물(records) vs. 비현용기록물(archives)
- 공공기록법: 공공기록물의 체계적인 수집·보존·활용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
archives vs. manuscripts**

구분	행정기록물로서의 아카이브(archives)	비행정기록물=역사기록물 매뉴스크립트(manuscripts)
목적	행정적 이용	연구 목적
특징	하나의 원천에서 수집 정리와 기술작업에 통일성 과 구조 제공 가능	생산기관의 조직·기능별 분류 전체 기록물 내에서 연관구조 생 성 필요
필요서식	기록물 이관서식	기증서(기증자, 기록물내역, 저 작권 양도 등)
수집	의무적 이관제도 운영	정보분석과 수집원 개발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 archives vs. manuscripts

구분	행정기록물로서의 아카이브(archives)	비행정기록물=역사기록물 매뉴스크립트(manuscripts)
등록	생산부서 1차 등록 이관 접수 후 소장 등록	수집 후 등록
분류	업무시의 맥락 유지	내용상의 맥락 유지
기술	주제어, 색인어 추출 용이	생산자 다양, 전거제어 통해 주 제어나 색인어 추출
이용	공개 여부 유의	저작권, 초상권, 프라이버시 유 의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 ☐ 도서관과 자료
- ☐ 기록관과 기록물
- ☐ 박물관과 유물

비행정기록물 = 역사기록물 = 수집기록물 = 매뉴스크립트
(manuscript)

도서관 자료 vs. 기록물

도서관 자료	기록물
원자료를 인용 해석한 이차자료	원자료 또는 일차자료
지적 창작 활동의 산물	개인·조직의 활동결과 축적된 자료, 업무 수행의 부산물
복본도 보관가치 있고 이용가치 동일	원본 이외 부분은 보존가치 없음
주로 인쇄에 의한 출판물, 판권 있음	주로 필기, 필사, 타이프라이터, 워드프로 세서로 찍힌 문서. 유일성이 있고 판권 성질 아님
구입, 기증, 교환에 의해 수집	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수령 혹은 수취
저자 또는 발행자의 의도와 목적이 직접적으로 중요하지 않음	생산기관 또는 작성자의 생산의도 및 목적 중요

도서관 자료 vs. 기록물

도서관 자료	기록물
주제사항이 중요	생산기관이나 작성자의 활동 및 행위가 중요
체계적·이론적 객관성이 전제됨	체계적·이론적 객관성이 전제되지 않음
지식 체계내의 한 범주에 속함	지식 체계내의 한 범주에 반드시 속하지는 않음
형태가 규격화됨	형태가 규격화되어 있지 않음
보통 한 책 한 제목으로 되어 있음	수량 관계없이 관련성 있는 서류는 일련의 문서로 모아져야 함

도서관 자료와 아카이브 기록물의 정리 방법

구분	도서관 자료	기록물
분류방식	주제별 분류	생산기관의 조직·기능별 분류
	공통된 분류체계 있음	공통된 분류체계 부재
목록단위	개별적	집단적(그룹, 계열)

도서관 자료와 아카이브 기록물의 정리 방법

구분	도서관 자료	기록물
목록 기술내용	아이템 수준 기술 통제	그룹 수준 기술 통제 계층구조로 인해 다른 기록물과 수직적·수평적 연관에 따른 다층구조
	서지 정보원을 통해 기술	서지적 정보원(표제지나 판권기) 부재로 생산배경과 기록물 자체 분석 통해 기술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지, 출판년, 면수, 크기, 주기 등 해당자료 고유 정보 중심 기술	문서명, 출처, 기능, 주제사항, 생산년도, 생산기관, 유형, 수량, 크기 등 고유정보 & 생산기관의 연혁, 기능 및 활동, 수집, 평가, 처분 내용 등 생산과정과 관련된 다른 기록물까지 기록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기능 비교

업무 비교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기본기능	도서 자료의 수집, 정리, 서비스 전반	기록물의 수집 관리	문화유산의 연구, 수집, 분류 및 정리, 전시 및 교육
지식 정보	-연구 상담 및 지원 -도서관 이용교육 프로그램(견학, 학술정보 활용 교육 등) -지식정보전문가의 안내 서비스 -지식문화콘텐츠 개발 및 제공	-기록물을 활용하여 재가공하거나 창출된 기록정보콘텐츠 제공 -강좌, 세미나, 학습매체 및 교수안 제작, 기록물 탐색 대행 등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	-유물(박물 자원) 활용 지식정보 제공 및 관련 문화 교육 제공 -유물 관련 연구 조사 및 보존처리 등 학예연구 -전시 및 문화콘텐츠 개발

라키비움(Larchiveum)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기능을 융합

Libraries, Archives, Museum

- 세계적인 문화정보기관의 복합화 추세 반영
- 이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 요구에 부응
- 학제간 연구 지속

대학도서관, 대학기록관, 대학박물관

- 대학기록관 - 행정기록물 이관: 대학행정의 책임성 강화

행정기록
본부 및 단과대학의 각 부서별 행정문서
주요 위원회의 회의록 및 보고서
대학의 주요 정책 결정자와 집행자의 서신 및 업무관련 기록
예산 결산 기록, 학적기록, 외국대학과의 교류 및 협력 자료
입학사정위원회 보고서
대학지도 및 건축도면, 캠퍼스 조성 관련 기록

대학도서관, 대학기록관, 대학박물관

- 대학기록관 - 매뉴스크립트 수집: 대학의 역사성 확립

매뉴스크립트
정년퇴임교수 개인기록, 교수 연구저작물
학생회나 학생단체, 학생활동 관련 기록, 동창회 기록
교수, 직원, 학생 졸업생의 주소인명록
대학 명의로 배포된 모든 출판물, 신문, 소책자 등
교육과정 기록, 대학 발전을 담은 시청각 자료
학교사 관련 사료와 유물
지역사회 기록

대학도서관, 대학기록관, 대학박물관

• 국내 대학 아카이브 운영 사례

소속	업무	인력
독립기구	역사기록물(학교사자료) 수집	기록관리사(Archivist)
도서관 소속	행정기록물 이관 및 보존	사서(Librarian)
박물관 소속	이관, 수집 병행	학예연구사(Curator)

대학도서관, 대학기록관, 대학박물관



대학 향토자료실 & 제주자료실

□ 1966년 향토자료실 설치

제주자료의 수집·보존·활용



대학 향토자료실 & 제주자료실

□ 2005년 제주 관련 연속간행물 기사(목차)색인 구축

누적 건수: 5,261권/ 121,275건

기사목록
(논문) 케이만 아일랜드(Cayman Islands) 금융감독기구 체계와 제주국제금융센터(IFC) 금융감독기구의 설립 방향에 대한 시사점 / 1226870 / 고동원 / (사)제주금융포럼, 2011
(논문) 제주국제금융센터의 설립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시 고려사항 / 1226871 / 고 순 / (사)제주금융포럼, 2011
(논문) 금융기관의 고객보안업무- 해외금융센터의 설립과 관련하여 / 1226872 / 김양근 / (사)제주금융포럼, 2011
(논문) Captive Insurance를 통한 제주도 경제력 기대효과 / 1226873 / 김준호 / (사)제주금융포럼,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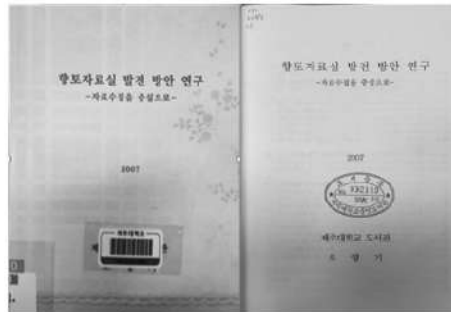
자료유형	향토공간물
서명책임자	역외금융연구 = Journal of offshore financial services : 제주금융포럼, 제주발전연구원
주제	제주금융포럼
단체지명	(사)제주금융포럼, 제주발전연구원
발행사항	서울 : (사)제주금융포럼, 2008-
형태구분	책, 27 cm
ISSN	2092-5626
표준번호	327.905 0 337 0
간행년도	연간
발행년월	제1권(2008년12월)-
표준어	보지
▲ 접기 개인보관함 공시보관함 내보내기	

권호 정보	소장 정보						
중앙도서관							
소장위치	분류기호	요약정보					
3층 제주자료실(보존) CP 327.905 0 337 0 제3권(2010)-제4권(2011)							
구독품 (인수예경 : 5권)		2011년 ▾					
권호▲	소장위치◆	발행일◆	입수일	상태	담당	관리자	기타
제4권	3층 제주자료실(보존)	2011.12.31	2012.07.30	9	재보존중		기사목록

대학 향토자료실 & 제주자료실

□ 2007년 향토자료실 발전 방안 모색

향토자료실 발전 방안 연구: 자료수집을 중심으로



대학 향토자료실 & 제주자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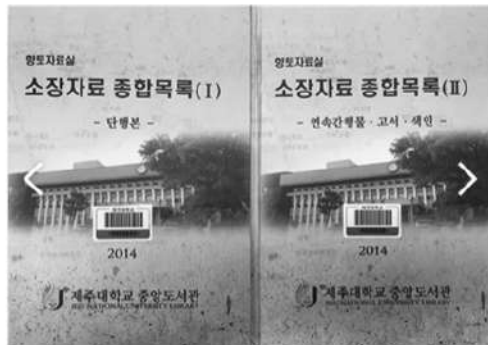
□ 2012년 애향의 서(愛鄉의 書) 발간

재일본관서제주특별자치도민협회 청년회 도서기증 42주년 기념지



대학 향토자료실 & 제주자료실

□ 2014년 향토자료 종합목록 발간



대학 향토자료실 & 제주자료실

□ 2015년 교육대학 역사자료실 소장 기록물 정리



학교사 자료, 유물 정리 209종 385점의 기록물 정리

대학 향토자료실 & 제주자료실

교육대학 역사자료실(2015. 2.)

연번	문헌번호	종류	개원연월	장르	주제어	수량	제출연월(연/월)	종가(원)	비고	실사연월	비고
144	가4	책		72년도 졸업앨범		1	1년	3호 28 4호 30	전시용		144-173 해당 위치(전시용 제외)
145	가5	책		73년도 졸업앨범		1	1년	3호 28 4호 31	전시용		

대학 향토자료실 & 제주자료실

□ 2017년 향토자료실 ➡ 제주자료실로 명칭 변경

향토자료 vs. 제주자료

- 향토자료: 내 고장, 향토의 정서, 정신문화를 대표·대변하는 자료
공공도서관은 향토사회의 행정적 범위에 따라 구분
- 제주자료: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문
제주지역에 대한 학제간의 총체적 접근 요구

대학 전시회 운영

□ 2019 제주 4.3 추념 전시회

- 개요 : 제주 4·3 관련 도서와 지역 작가들의 4·3 관련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여 제주자료 홍보
- 기간 : 2019. 4. 1. ~ 4. 12.
- 장소 : 중앙도서관 제주자료실 및 로비



대학 제주자료실- 개선 사업

□ 2019 제주학 기초자료 활용 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2019. 9. ~ 2020. 2.
- 제주학 기초자료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운영 시스템 구축
-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제주자료실 공간 구성
- 이용자 접근성 제고 및 편리한 정보 서비스 제공 위한 인프라 구축(중앙도서관 3층 → 1층)
- 라키비움(Larchiveum) 공간으로서의 제주자료실: 기록관, 박물관과의 협업 활동 추진

대학 제주자료실- 환경 개선 및 서비스 재개(2020. 3.)



대학 제주자료실 운영

□ 2019 제주학 연구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



제주지역신문 아카이브 화면
(좌: 1962년, 우: 1975년 신문)

대학 제주자료실 운영

□ 2022 JNU 이용자 맞춤형 큐레이션 서비스

- 학술자원 큐레이션: 제주자료 전시회 '문학 속 제주'



대학 이용자 서비스 - 전자정보박람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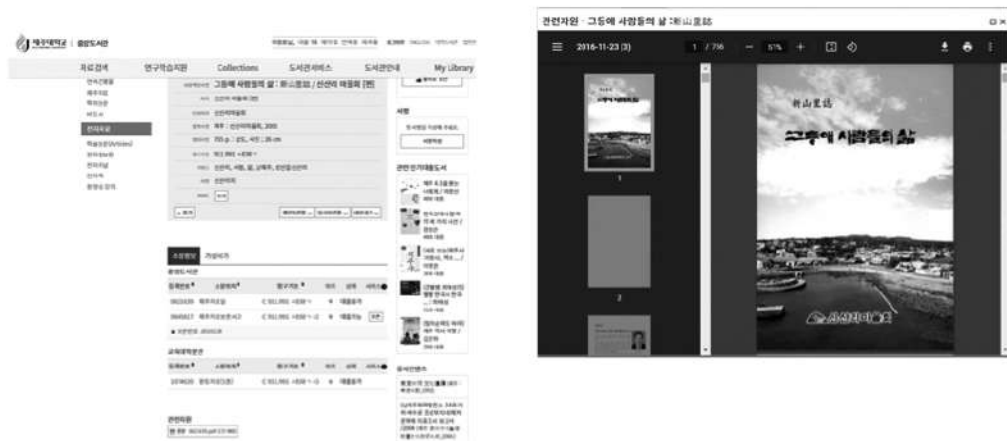
□ 2019 제2회 학술 전자정보박람회

-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 아카이브 부스 운영



대학 제주자료 원문 디지털화

□ 제주 향토자료 원문 디지털 구축: 마을지 30종 원문 이용 동의 성산포지, 성읍마을, 큰갯마을 등으로 이용허락동의서 제공받은 경우



대학 제주자료 원문 디지털화

□ 학교 문예지: 2000년 이전 발간된 제주지역 중·고등학교의 문예지 창간호에 대한 디지털화로 소속감과 자긍심 고취

- 굴림(오현고, 1956), 진달래(제주여고, 1956), 세화(세화고, 1956), 녹나무(신성여중, 1957), 백사(표선고, 1957), 한얼(제일중, 1961), 양지(서귀여고, 1967), 일맥(제일고, 1972) 등



대학 제주자료 원문 디지털화

- (대학 간행물) 제주대 연구실적물, 대학간행물(연속간행물), 대학 앨범 등의 대학 역사 자료(교사자료)



대학 제주지역 신문 디지털 아카이브

□ 제주학 연구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

• 사업목적

- 제주지역 신문 원본의 영구적 소장(디지털 파일) 기반 마련
- 지역학 연구자 및 정보 수요자에게 편리한 형태의 자료 제공

• 성과목표

- 특성화 분야 연구역량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 '제주지역신문 디지털 변환 구축' 자율지표 달성

□ 제주학 연구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

< 제주대학교 소장 원문디지털화 대상 자료 >

신문명	소장현황
제 주 신 문	1962.6. ~ 1996.12.
제 남 신 문	1967.1 ~ 1980.11.
제주대신문	1982 ~ 1999
서귀포신문	1996 ~ 1999
제 민 일 보	1990 ~ 1999
제 주 일 보	1997 ~ 1999
제 주 타 임 스	1999
제 주 투 어 저 널	1989 ~ 1991
한 라 일 보	1989 ~ 1999
제 주 대 신 문	1982 ~ 1999

• 기대효과

- 제주학 연구자에게 (시공간 제약 없는) 최적의 연구 환경 조성·제공
- 제주학 발전에 기여하고 제주에 대한 자긍심 고취
- 지역사회와의 협업으로 제주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운영
- 가치있는 지역 문화와 유산을 보존, 후대에 계승하는 토대 구축

- 유관기관과의 협력
 - 제주학 정보자원의 디지털 아카이빙 역할 분담
: 구축 계획, 원문 아카이빙, 자료 공유, 서비스
 - 지역민 대상 강좌 등 프로그램 공동 운영
 - 기획 전시회 순회 전시 운영
- 제주대학교 박물관·기록관과의 협업
 - 구술자료 정리, 시청각자료 디지털화
 - 제주자료 전시회에 역사자료, 기록물, 유물 등 활용

참 고 문 헌

- 강연아(2006). 대학 매뉴스크립트 검색도구 사례분석과 시안.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기록관리학전공
- 국립중앙도서관(2020).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스칼라십 정보서비스 개발 연구
- 김복희(2009). 대학 비행정 기록물의 분류 및 기술에 대한 연구: 서 울여자대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사대도협회지』, 10: 53-93.
- 남궁항. 1999. 도서관과 기록보존소의 업무에 관한 비교분석. 『한국 비블리아』, 10: 117-136.
- 문순덕(2012). 제주학의 연구 동향과 과제. 제주도연구 제37집, pp.1-25.
- 염미경(2014). 제주지역연구의 성과와 전지구화시대 제주학의 발전 방향. 제주도연구 제41집, 1-26.
- 오영기(2007). 향토자료실 발전 방안 연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 이정효(2011). 대학수집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최영실, 이해영(2012)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기능을 융합한 라키비움의 기능 계획,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권 4호, PP.
- 한미경(2015). 대학도서관 역사문화기록실의 현황과 운영방안 연구. 서지학연구 제62집, pp.327-356.

제2기 제주학 '시민 아키비스트' 심화과정

타라의 역사·문화·삶을 기록할
'시민 아키비스트'
전문인력 양성



육지해녀 기록과 마을 기록관(박물관) 상상해 보기

김창일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사

육지해녀 기록과 마을 기록관(박물관) 상상해 보기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김 창 일**

현장조사, 기록, 수집의 예(육지해녀)

해양민속학 개념

*바닷가(어촌) 사람들의 일상생활(생활 양식)을 조사·기록·연구하는 일

- 연구 영역

생업기술, 구비전승(민속문학), 사회조직, 신앙, 세시풍속, 놀이, 일생의례, 의식주 등.

밥벌이, 먹고 노는 일 등 사람이 살아가는 것 자체를 다루는 학문으로 일상성, 집단성(공동체성), 전승성(전통성)을 가진 유무형의 것.

출향해녀의 역사

1. 제주해녀와 유사해 보이지만 육지해녀의 물질방식은 많이 다름
2. 사회 경제 환경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물질방식이 결정됨
3. 따라서 작업방식을 결정하는 요인을 추출하여,
물해녀사회의 문화사회적 성격과 변화상 포착

입어형태에 따른 차이

동해안과 부산

**: 어촌계와 입어행사로 계약에 따라 물질
(해녀에 대한 어촌계의 직접적인 통제)**

**통영거제부터 서해안까지는 선주와 어촌계 계약 후
선주가 해녀를 고용하는 방식**

- 부산 가덕도는 두 가지 방식이 공존

조선시대

성종실록(成宗實錄) 262권, 성종23년(1462년) 2월 8일

근년에 제주(濟州) 세 고을의 인민(人民)이 자칭 두독야지(豆秃也只:한라산의 별칭)라 하면서 처자(妻子)들을 거느리고 배를 타고 경상도, 전라도의 바닷가 근처에 옮겨 정박(碇泊)하는 자가 수천 여 명이다.

- 중앙관리와 지방 토호의 과도한 수탈, 왜구의 빈번한 침입, 과도한 진상, 부역의 증대 등으로 제주도를 이탈하는 주민의 증가

: 1629년(인조 7년) **출륙금지령**

- 지리적으로 가까운 경상도, 전라도 해안 집중

학성지(鶴城誌, 1749년)

고적(古蹟)

頭毛岳 世傳曾前 朝家爲採卜進上移來濟州海民略干戶

두모악은 일찍이 전복을 잡아서 조정에 진상하기 위해 제주의 해민(海民) 약간 호를 옮겨 왔다고 세상에 전해진다. (하락)

性强直不欺[濟州漢拏山 一名頭無岳 似是不忘本 及此若]

성품이 강직하고 속이지 아니한다.[제주의 한라산을 부르기를 두모악이라고도 하는데, 아마 근본을 잊지 않고서 이와 같이 된 듯하다.]

전복을 피해 도망간 해녀와 포작인

- 위태롭구나, 전복 따는 여인이여. 바다에 나가 맨몸으로 들어가네. 저 괴로운 생애 가련해서, 어진 사람은 차마 목구멍으로 넘기지 못하네.(제주목사 이예연)

- 진상하는 전복 수량이 매우 많고 관리들이 공을 빙자하여 사육을 채우는 것이 몇 곱이 되므로 전복 잡는 포작인들은 견디지 못해 도망가고 익사하여 열에 두셋만 남게 됐다. 그럼에도 거둬들이는 세금은 줄지 않으니, 이웃에 흠여미가 있다 하더라도 차라리 벌어먹다가 죽을지언정 포작인의 아내가 되려 하지 아니한다. (김상헌, 남사록)

- 지아비는 포작에 선원 노릇을 겸해 힘든 일이 허다하며, 지어미는 잡녀(해녀) 생활을 하여 1년 내내 진상할 미역과 전복을 마련해 바쳐야 하니 그 고역이란 목자보다 10배 나 됩니다. (중략) 죽기를 무릅쓰고 도망하려 함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제주목사 이형상, 상소문)

- 전복 캐는 해녀는 90명, 미역 채취하는 해녀는 800명에 이른다. 해녀들이 전복 캐는 일은 죽기를 무릅쓰고 피한다.(제주목사 이익태, 지영록)

개항기 일제강점기

제주어장의 황폐화

- 1883년 조·일통상장정(朝日通商章程) 체결 이후
600여 기의 잠수기가 제주해역에서 조업함으로써 어장의 파괴
- 제주해역의 황폐화로 해산물 수확이 급격히 줄어들음
- 1895년부터 기장과 울산 등지로 제주의 바깥물질

우뭇가사리 수요 증대

- 일본에서 산업용, 군수용으로 이용할 해조류의 수요 급증
: 우뭇가사리 가격(1916년 미역가의 66배 / 1930년대 1,033배)
- 부산 모여있던 객주(일본 해조류 상인)에 의해 제주해녀의 바깥물질 촉진
: 1893년에 60개, 1909년에 1,367개
- 수산물의 상품화에 따른 현금 소득화와 해상 교통수단의 발달

따라서 1915년 2,500명 정도가 출항함
(경남 1700여 명, 전라도 300여 명, 기타 200여 명)

일제강점기 출항해녀

〈濟州道勢要覽〉, 제주도청, 1936년 참조

출가지	1937년 출가해녀	1939년 출가해녀
경상남도	1,650명	1,581명
경상북도	473명	308명
전라남도	408명	367명
전라북도	19명	7명
충청남도	110명	141명
강원도	54명	60명
함경남도	32명	106명
함경북도	5명	-
황해도	50명	14
일본	1,601명	1,548명
합 계	4,402명	4,132명

일제강점기 제주해녀의 해외 바깥물질



1960~70년대 출향해녀

제주수산60년사 참조

구 분	계	경 남	경 북	전 남	강 원	기 타
1962년	4,090	1,356	1,584	232	787	131
1963년	2,215	696	1,320	71	125	3
1964년	2,071	378	1,354	108	165	66
1965년	1,538	258	1,049	56	113	62
1966년	1,903	338	1,103	143	188	131
1967년	1,909	788	635	248	129	109
1968년	1,093	159	654	84	81	115
1969년	1,167	457	216	282	145	67
1970년	1,023	239	85	188	-	511
1971년	1,230	302	126	284	166	352
1972년	917	264	249	158	104	142
1973년	867	254	199	238	64	112

1960~70년대 바깥물질

- 일제강점기에는 경남해안에 집중되던 바깥물질이 1960년대에는 경북지역으로 몰림
- 1960년대 후반부터 바깥물질의 점진적 감소

감소 원인

- 제주도 내에서 채취되는 톳, 우뚝가사리, 소라 등의 값이 좋음
- 경상북도의 입어관행권 소멸확인 청구소송으로 입어관행권 소멸 : 제주도의 '해녀 안보내기 운동'
- 70년대 양식업의 발달, 육지 해안의 수산자원 고갈, 육지에 정착한 출향해녀의 노동력 대체 등

출향 원인과 주요 채취물

구분	출향 원인	주요 채취물	출향 인물자
조선시대	과도한 공납	전복	(해녀 남편?)
개항기·일제강점기	어장 파괴, 수익	우뚝가사리	객주(해조류 상인)
60년~70년대	수익	미역	해녀 사공

- 해녀 사공 : 해녀를 필요로 하는 마을 주민들이 제주도로 가서 해녀를 모집함.
- 보통 1명의 해녀사공이 10명~15명 의 해녀를 모집함.
- 한 마을에 적게는 20명 내외, 많게는 100명 이상의 제주 해녀가 바깥물질을 함.
- 2월에서 추석 전까지 바깥물질을 한 후에 제주도로 돌아감.
- 해녀사공은 채취한 해산물의 10%를 수수료로 챙김.

최초의 고무잠수복사를 찾아서

해녀 잠수복의 역사

◎ 물소중이와 물적삼

- 탐라순력도(1702년) : 물소중이만 입은 해녀 그림
- 잠녀 옷 짧아, 알몸으로 만경의 물결 속에 자맥질하네.(조정철의 제주유배 때 시)
- 위태롭구나 전복 따는 여인이여. 바다에 나가 맨몸으로 들어가네.(제주목사 이예연의 시)

◎ 고무 잠수복 보급의 영향

- 물질 시간 늘어남에 따라 채취량 급증/초창기 제주도, 고무 잠수복 착용 금지 시키는 마을도 생김
- 고무 잠수복의 보편화로 잠수 시간 늘어나고, 채취 수심도 깊어짐에 따라 직업병이 늘어남
- 고무잠수복 기능: 보온성(작업시간 늘어남, 해산물 채취량 월등), 부력(자유로운 수영), 보호(안전)

해녀잠수복이 불러온 태풍

2018.8.31

촌스럽고 오래된 간판이 걸린 2층 계단을 오르자 역한 냄새가 짙어졌다. 문을 여는 순간 접착제와 고무 냄새가 밀려왔다. 바닥과 테이블에는 검정 고무원단이 널려 있고, 그 속에서 노인 3명이 원단을 자르고 붙이고 있었다. 잠수복을 만드는 가내수공업 현장이다.

해왕잠수복사와 울산잠수복사는 동해안 해녀들의 잠수복을 책임지고 있다. 한때 호황을 누리던 수많은 해녀 잠수복 제작사들은 폐업했고, 동해안에 단 두 곳만 남았다. 둘 다 가족이 운영하는 영세 업체다. 3명이 협업해 하루 잠수복 3벌을 만든다. 모든 과정이 수공업이다. 단골 해녀 수백 명 각각에게 꼭 맞는 잠수복을 만들기 위해서는 손의 수고로움에 기댈 수밖에 없다.



김창일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두 업체는 친자매가 운영한다. 언니가 해왕잠수복사를, 동생이 울산잠수복사를 운영한다. 40여 년을 경쟁하는 관계다. 해녀들은 전화로 잠수복을 주문한다. “작년보다 배가 좀 나왔으니 조금 늘려주세요.” 그러면 장인은 해녀의 치수를 꼼꼼히 기록한 양식지를 바탕으로 조정해서 제작한다. 이 양식지는 버리지 않고 보관했다가 다음 주문이 있을 때 사용한다. 동해안 모든 해녀의 신체 치수는 두 잠수복사가 보관하고 있다. 세월의 흐름에 따른 해녀들의 치수 변화까지 알 수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해녀들의 신체가 커졌다고 한다. 1970년대는 3호에서 4.5호까지를 주로 만들었으나, 지금은 5호에서 7호가 대세란다.

고무 잠수복 역사는 50년을 넘지 않는다. 고무 잠수복의 보급은 해녀에게 혁명이었다. 1960년대 후반, 일본에 있는 친지가 보내주거나 일본으로 원정 물질 갔던 해녀들이 가지고 오면서부터 알려졌다. 이렇게 되자 해산물 채취량이 몇 배로 증가했다. 고무 잠수복을 가진 해녀와 그렇지 못한 해녀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잠수복을 구입할 수 없는 다수의 제주 해녀들은 고무 잠수복 착용 금지를 결의했다. 워낙 고가여서 소수의 해녀들만 착용할 수 있었기에 발생한 갈등이다. 제주도에서 고무 잠수복 착용을 금지하는 마을이 늘어나자 육지에서는 더 빠르게 확산되었다. 동해안과 남해안 등지의 해녀 77% 정도가 입을 때, 제주도 해녀는 30% 정도만 착용할 만큼 차이가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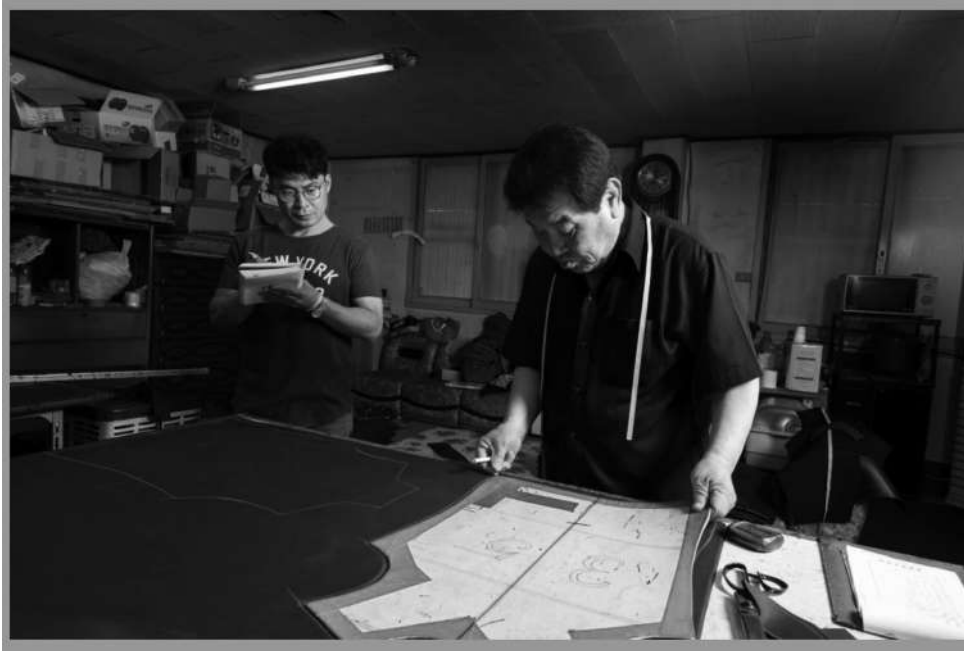
고무 잠수복 이전에는 광목으로 만든 물옷을 입었다. 방한이 되지 않았고, 몸을 가리는 역할만 했다. 보온성이 없으니 물질 시간이 짧았고, 겨울에는 작업을 할 수 없었다. 반면 고무 잠수복은 보온성이 탁월해 바다에 오래 머물 수 있고, 부력이 좋아서 힘을 적게 들고 떠 있을 수 있으며, 납 벨트를 착용해 더 깊이 잠수할 수 있었다. 탄성이 있어서 날카로운 바위에 부딪혀도 웬만해서는 다치지 않았다.

그러나 명(明)이 있으면 암(暗)이 따르는 법. 효율성의 이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다. 이전에 없던 직업병이 나타났다. 무리한 작업으로 두통, 현기증, 난청, 축농증, 불안, 피부질환이 급증했다. 납 벨트 때문에 요통 환자가 급격히 늘었다. 항히스타민제, 진통제 같은 약물도 남용 부작용도 생겼다. 편리함이 가져다준 고무 잠수복은 장시간 노동과 각종 질병이란 근심거리를 동반했다. 문명의 이기가 늘 그러하듯이.

해왕잠수복사(동생)



고무원단 위에 견본을 대고 선을 그리는 장면



울산잠수복사(언니)



해녀 역사가 수록된 장부



영도 보온상사 : 최초의 해녀고무잠수복사



해녀 잠수복은
누가 만들었을까.

2022. 5. 29

‘잠녀(해녀) 옷 짧아, 알몸으로 만경의 물결 속에 자맥질하네. 요즘 일은 힘들고 어물 잡기 어려운데, 예사로 채찍질하는 관아는 몇 곳 인가?’라는 시에서 조정철(趙貞詰)은 제주 유배 때 본 해녀의 처참한 모습을 담았다. ‘위태롭구나, 전복 따는 여인이여. 바다에 나가 맨몸으로 들어가네. 저 괴로운 생애 가련하여서, 어진 사람은 차마 목구멍으로 넘기지 못하네.’ 제주목사였던 이예연(李禮延)은 전복 따는 해녀의 안타까운 모습에 차마 전복을 먹을 수 없음을 시로 표현했다. 두 시에서 해녀가 알몸으로 물질했다고 한 것은 상의를 입지 않았기 때문이다.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1702년)에 물소중이만 입고 물질하는 해녀 모습이 그려져 있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김창일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우리 부모 날 낳을 적에, 해도 달도 없을 적에, 나를 낳아 놓았을까. 어떤 사람 팔자 좋아서, 고대광실 높은 집에서, 긴 담뱃대 물고 앉아, 사랑방에 잠을 잘까. 해녀팔자는 무슨 팔자라, 혼백상자 등에 지고서 푸른 물속을 오락가락.’ 해녀들은 고단한 삶을 민요에 담았다. 얼마나 고단한 삶이면 혼백상자를 지고 물속으로 들어간다고 했을까. 팔자는 해녀를 조사하면서 그 녀들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해녀 할머니들의 한결같은 답변은 추위였다. 1970년대 초반까지 방한 기능이 전혀 없는 무명으로 만든 물소중이(하의)와 물적삼(상의)을 입었다. 쌀쌀한 날 물질하고 나오면 사시나무 떨 듯 했다고 한다. 고무 잠수복으로 바뀌면서 오래 물질할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해산물을 채취했다. 부력으로 힘을 적게 들고 떠 있을 수 있었고, 납 벨트를 착용해 더 깊이 잠수할 수 있게 되었다.

해녀에게 고무 잠수복의 보급은 혁명이었다. 1960년대 일본으로 물질 갔던 해녀들이 가지고 오면서 알려졌고, 한국도 만들기 시작했다. 필자는 처음 잠수복을 만든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수소문한 결과, 동해 해녀들은 해왕잠수복사와 울산잠수복사에서 주문 제작하고 있었다. 40여 년을 경쟁관계에 있는 두 잠수복사의 주인은 자매였다. 두 곳의 주인 모두 “최초의 잠수복 제작사는 부산의 보온상사”라는 증언을 했다. 필자는 우여곡절 끝에 보온상사를 찾았다. 하지만 설립자는 만날 수 없었고 아들이 운영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가업을 물려받은 그의 형도 세상을 떠났다. 최근까지 잠수복을 만들던 어머니도 2년 전 교통사고를 당하여 일을 할 수 없었다.

제주 해녀 출신인 그의 어머니는 1960년대 후반부터 일본에서 고무 원단을 수입하여 잠수복을 만들었다고 한다. 고성, 속초, 제주의 잠수복 제작자들에게 기술을 전수했다. 1980년대는 10명의 직원을 뒀고, 작업장도 두 곳을 운영할 정도로 호황을 누렸다. 지금은 찾는 사람이 드물다. 홀로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힘겨워 보였으나, 보온상사의 역사를 말할 때 눈은 반짝였다. 그는 한국해양대 해양공학과에 다니던 4학년 여름방학 때 아버지를 돕기 위해 발을 들여놨다가 홀로 지키게 됐다며 담배연기를 뿜었다. 우연과 필연이 교차한 그의 선택에는 자부심과 회한이 중첩되어 있었다. 고무 잠수복 역사를 찾아 나선 필자의 여정도 그렇게 빈 공간을 남겨두고 갈무리했다.

바깥물질 초창기

출향해녀가 정착한 곳, 영도

영도 종리 해녀



영도 종리해녀촌 : 제주 출향해녀 중심



영도의 해녀 작업장



2019. 10월까지 중리해녀촌



전국적인 유명세를 탄 영도 성게알 김밥



2019. 11. 6 이후의 해산물 공동판매장 : 물질, 판매방식 등 급격한 변화



돌미역 채취와 제주 출향해녀의 집단 정착 (기록)

삼척 갈남마을 출향해녀

출향 시기

곽명순 : 1967년 결혼(23세) : 민박 겸업
김태희 : 1974년 결혼(27세) : 민박, 통발어업 겸업
박정숙 : 1969년 결혼(21세) : 해녀작업선 및 3층 건물 민박 겸업
양애옥 : 1964년 결혼(18세) : 자망어업 겸업
김월선 : 1968년 결혼(21세) : 민박 겸업

- 위의 출향해녀 모두 가난한 집에 시집와서 현재는 마을 내에서 가장 부유한 층에 속함.

삼척 갈남마을 출항해녀



불턱이 없어서 항구 구석에서 몸을 녹이는 해녀



해산물 채취의 행사료와 입어료

품 목	어촌계	해녀 입어료	기타
전 북	70	30	
미 역	70	30	
해 삼	40	60	
성 계	40	60	
홍 합	40	60	
우렁쉥이	무상		5일 조업
문 어	무상		2.1-3.30 허용

*비중이 가장 높은 해산물:돌미역

암주추천

세운 근심 (15)															분양추천 (1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이	나	진	김	서	한	박	김	김	박	이	최	이	김	박	김	정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재	현	태	카	성	본	도	유	김	김	박	주	박	김	김	김	정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준	몽	곤	자	봉	수	정	정	정	정	정	정	정	정	정	정	정	김	정	김	정	김	정	김	정	김	정	김	정	
홍합 장범 (15)															하복 역우 (15)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박	신	신	이	박	박	이	이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정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모	모	모	모	모	모	모	모	모	모	모	모	모	모	모	모	모	모	모	모	모	모	모	모	모	모	모	모	모	

곽암 추첨

- 미역의 채취 구역 명칭 : 미역돌, 미역바위, 곽암

- 어촌계원 57명이 미역바위 일곱 구역을 나눠서 1년 동안 소유권을 가지는 방식

곽암 추첨 배정현황

곽암명	배 지원	해녀	어촌계원 명	계원 수
소고동 (잔창2)	김영일	김자아, 김순자	김자아, 김석주, 이상기, 김연화, 손성도, 한필선, 이화명	7명
잔창1	한중문	박외자	한중문, 김종철, 김유조, 송교인, 김용구	6명
배돌	윤중근	유애자, 정종례	윤중근, 유애자, 김봉근, 황순란, 김복만, 김명출, 손무	7명
중도암	신재관	박임례, 윤기화	신재관, 박임례, 윤기화, 황대선, 윤치용, 유정걸	6명
단치암 (금도기)	한중만	유영자, 유길자	한중만, 유영자, 유길자, 이복근, 박무자, 오역분	6명
옥수암	김명찬	김월선, 김소선	김명찬, 김근호, 윤태희, 김영순, 정임석, 정인호, 박만복, 김옥자	8명
대청방	김용달	김향순, 김옥연	김용달, 박영하, 김옥연, 김기철, 박정만, 이순희, 김영일, 이만우	8명
곽암추첨 참가자 : 48명				
추첨 포기자		윤출이, 김기수, 김봉선, 김말순, 이광자, 이한우, 이봉우, 최영순, 곽말분 : 9명		

갈남마을 돌미역 작업

- 각 바위별 공동채취, 개별건조, 개별판매
- 인공건조장 없음
- 크기 : 종각(가로30cm, 세로50cm)
- 수심 : 3m~7m(필미역)
- 작업선 1척, 해녀의 운영방식 때문에 동시다발적인 미역채취 불가



울산 제전마을 육당해녀

육당해녀가 된 시기

- 현재 물질을 하는 육당해녀는 24명, 물질하는 해녀는 13명
- 60년대~70년대에 제주 해녀 50명~60명 바깥물질을 함
- 대부분 결혼한 후 20대 중반에 물질을 배움
- 제주 출신 해녀에 비해 물질 실력이 현격히 떨어짐

해산물 채취 시기

연간물질 횟수

물질 종류 및 채취물	물질 시기	물질 횟수
전복, 참소라, 해삼 채취	설 명절 전	3일~4일
구제작업(불가사리, 성게, 군소 제거작업)	미역채취 전 4월초	2일~3일
미역채취 작업	4,5월	12일~13일
전복, 참소라 잡이	7월	4일~5일
전복, 참소라 잡이	추석 전	2일~3일
전복, 참소라 잡이	기세작업 전(10월)	2일~3일
기세작업	10월~12월	10일 내외
앙강이(말뚝성게) 잡이	기세작업 후(12월)	3일~4일
합 계		38일~45일

해산물 채취의 행사료와 일어로

품 목	어촌계	해녀 일어로
전 복	40	60
미 역	90	10
해 삼	50	50
말뚝성 게	10	90
소라	50	50

- 울산 역시 비중이 가장 높은 해산물: 돌미역

동해안 돌미역 작업 방식 비교

- 동해안 어촌 주민 가장 중요한 생업 수단
- 해녀의 가장 큰 수익원
- 해녀와 어촌계원의 협의에 의한 작업
- 미역 채취, 건조, 판매, 기세작업의 과정을 파악하면
제주 출항해녀의 동해안 어촌에서의 영향력을 확인 할 수 있음

동해와 남해의 분기점

분기점	도시	설정 기관
해운대 달맞이언덕 해월정 앞바다	부산	국립해양조사원
태화강 하구의 방어진항 남쪽과 일본 이즈모시를 잇는 직선	울산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의 해안 경계 지점	부산 울산	기상청
오륙도	부산	문화체육관광부

울산 제전마을의 돌미역 작업
방식의 보편성과 특수성 파악
을 위해 주변 마을까지 조사

■ 울산

1. 제전
2. 우가포
3. 북성
4. 판지
5. 정자
6. 화암

■ 경주

1. 감포 전촌

■ 삼척

1. 갈남마을



삼척 갈남마을 돌미역 하역작업에 동참한 조사자



우가포



- 개별 채취, 개별 건조, 개별 판매
- 개별적으로 건조장 소유
- 미역바위 매도 방식 : 개인간 거래
- 미역크기 : 대각, 중각
- 채취 수심 : 1-2m(미역바위 꼭파함)

채취, 건조 방식에 따라 건조발과 망사리의 크기가 축소되고, 건조미역 크기도 다양화됨



복 성



- 어촌계 공동채취 후 공동건조, 개별 판매
- 마을공동 건조장
- 행정적으로는 판지어촌계에 소속
- 채취 수심 : 1-2m(미역바위 꼭파)
- 수심은 얕으나 물살이 강하지 않아서 필미역의 비율이 높은 편
- 생미역의 무게 17kg



판 지



- 공동채취, 개별건조, 개별판매
- 개인 건조장, 공동건조장 동시 운영
- 채취 수심 : 1-2m(미역바위 쪽파)
- 판지 팍암(울산기념물 38호)
: 박윤웅(울산박씨시조)-고려초 미역
바위 12구를 하사 받음



정 자



- 공동채취, 개별건조, 개별판매
- 자체적으로 소매판매
- 해녀들이 정자활어직판장에서 활
어판매에 매진하여 미역채취에
소극적
- 해녀 부족으로 외지해녀로 충당
- 기세작업도 꼼꼼히 하지 않음
(줄기세작업)
- 우가포, 제전, 판지에 비해 필미역
비율이 높음 : 기세작업 미흡

화 암



- 공동채취, 개별건조, 개별판매
- 채취수심 : 2.5~3.5m
- 미역바위 폭파 없었음
- 제전, 우가포에 비해 상대적으로
필미역의 비중이 높음
- 양식미역도 겸하고 있음(9명)
- 중매 판매가
양식 45,000원/돌미역140,000원

경주시 감포면 전촌



- 공동채취, 공동건조, 공동판매
- 마을공동건조장
- 채취수심 : 1m 내외
- 필미역의 비율이 울산미역에 비
해 높은 편임
- 울산에 비해 판매 어려움이 있음
- 경주의 어민들도 울산의 제전,
우가포 미역의 질이 좋은 것을
알고 있음

미역채취 방식의 비교

1) 미역바위 추천

- 미역바위 명칭 : 광암, 팜, 미역돌 등
- 다양한 방식
- : 매년 추천 / 2-3년 주기 추천 / 입찰을 통한 최고가 낙찰 / 개인능력에 따른 자율 채취

(1) 울산 제전마을

- 어촌계원 57명 / 미역바위 7권역
- 미역바위 추천 포기 : 추천 전에 어촌계에 반납 / 어촌계로부터 20만원 받음

(2) 삼척 갈남마을

- 어촌계원 59명 / 미역바위 4권역
- 미역바위 매매 : 미역바위 추천을 받은 후 개인적으로 매매 / 30만원 내외에 매매됨

■ 두 마을의 공통점

- 돌미역 생산 상황, 어촌계원 수의 변화 등에 따라 미역바위권역 조정
- 미역바위 주인 매년 추천

■ 두 마을의 차이점

- 울산 제전마을은 추천권 어촌계로 반환 / 삼척 갈남마을은 추천에 참여한 후 개인간 매매
- 기세작업 유무에 따른 추천 일자 : 가을 추천(울산 제전마을) / 봄 추천(삼척 갈남마을)

2) 해녀와 어촌계원의 참여방식

울산 제전마을

구분	미역바위	광암주 배정 인원(해녀)	작업선
1	소고동+잔창2	7명(2명)	1척
2	잔창1	6명(1명)	1척
3	배돌	7명(2명)	1척
4	중도암	6명(1명)	1척
5	단치암+금도기	6명(2명)	1척
6	옥수방	8명(1명)	1척
7	대청방	8명(1명)	1척
합계	7권역	48명(10명)	7척

삼척 갈남마을

구분	미역바위	암주 배정 인원	해녀	작업선
1	새암·큰섬	15명	5명(공동채취작업)	1척(공동작업선)
2	잠암·구룡암	14명		
3	흑암·장벽	15명		
4	하백·예암	14명		
합계	7권역	58명	(5명)	1척

- 울산 제전마을 : 공동채취, 공동건조, 공동판매
 - 장점 : 해녀, 선주, 어촌계원 등 다수가 수익금을 분배
 - 단점 : 해녀, 작업선 등 경비지출 많음(노동력 과잉 투입)
- 삼척 갈남마을 : 공동채취, 개별건조, 개별판매
 - 장점 : 효율적인 작업
 - 단점 : 소수의 해녀와 1명의 선주에게 수익 집중

울산 제전마을 미역 작업선



울산 제전마을 미역 작업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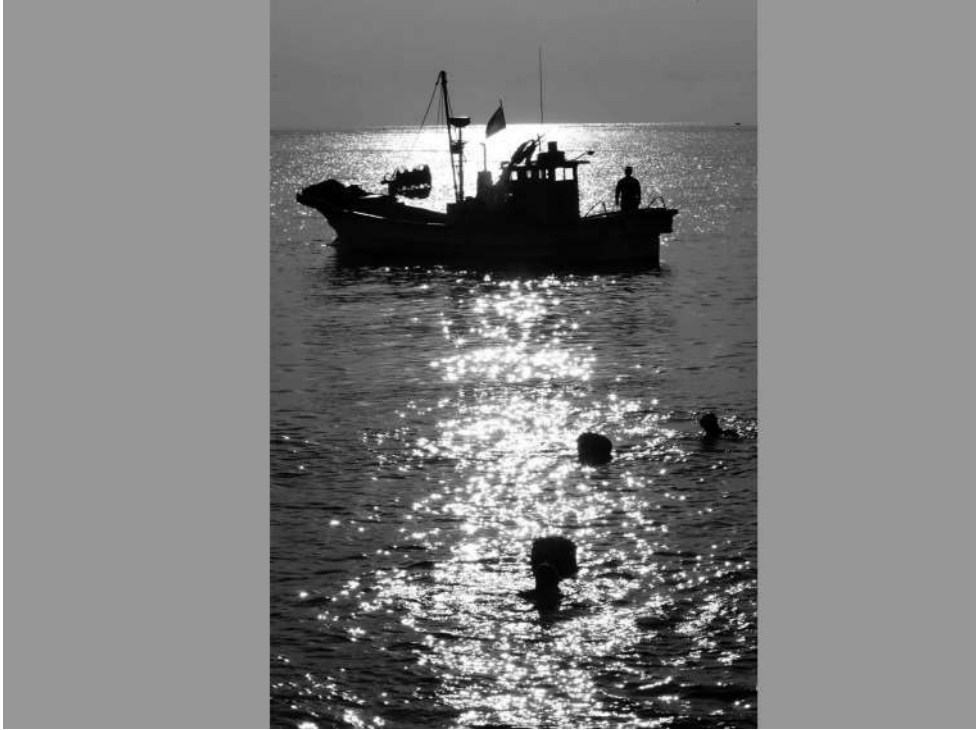


울산 제전마을 해녀의 미역 채취



울산 제전마을 해녀의 미역 채취 장면





미역 채취 중인 해녀



망사리에 담은 미역



삼척 갈남마을 해녀의 미역 채취 장면



삼척 갈남마을 미역 작업선 : 1척



건조와 판매 방식의 비교

자연건조와 인공건조

- 울산 제전마을 : 폭 50cm, 길이 230cm
- 삼척 갈남마을 : 폭 30cm, 길이 90cm

■ 인공건조 : 울산 제전마을

- 장점 : 날씨의 영향을 적게 받음, 빗줄과 건조상태가 균일
- 단점 : 초기 시설비용, 유류비 등 추가 비용 발생

■ 자연건조 : 삼척 갈남마을

- 장점 : 시설비, 유류비가 없어서 단가 낮춤
- 단점 : 최소 4일간 맑은 날씨가 예측되어야 채취 작업을 할 수 있음

울산 제전마을 채취 당일 자연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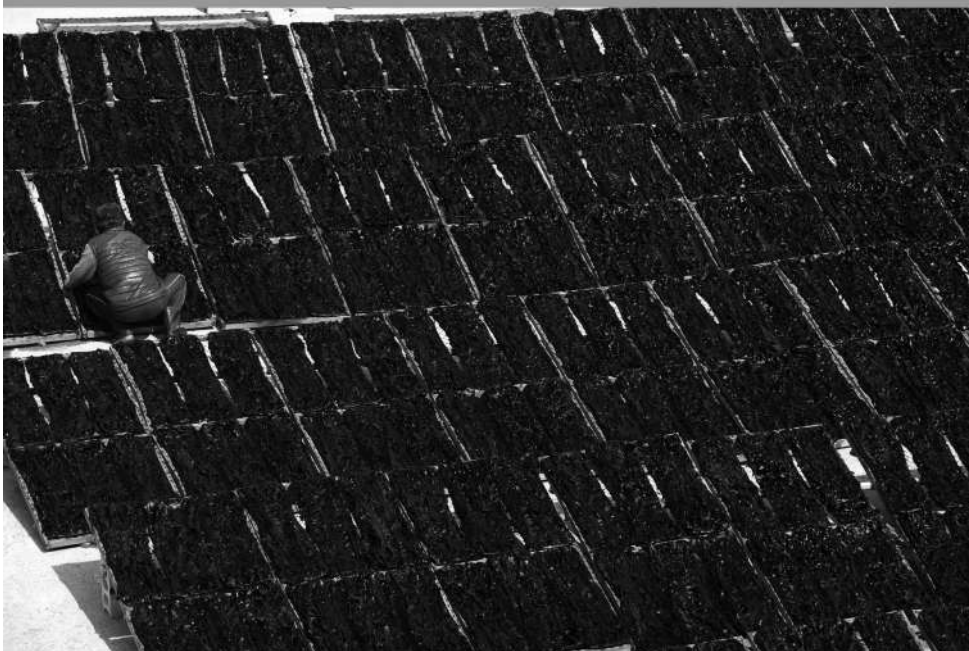
울산 제전마을 인공건조장 : 7개



삼척 갈남마을 자연건조



삼척 갈남마을 자연건조



삼척 갈남마을 돌미역 건조작업



판매와 수익

(1) 울산 제전마을

- 1장의 중매가 : 12~15만원(소매가 : 20만원)
- 대구 서문시장 판매
: 건조미역 최대 시장(점포 60개 밀집) - 대표상품은 울산 돌미역
- 8,028,125(총수익)-3,239,000원(제반 경비)=4,789,125원(순수익)
- 주민의 주생계 수단 : 65세 노령 인구 65%에 달하는 마을의 주요 수입원

(2) 삼척 갈남마을

- 1장의 중매가 : 6,500원~7,000원
- 강릉 등지의 상인에게 판매
- 총수익 : 1,120,000원~1,400,000원(부부가 어촌계원일 경우 2배로 환산)
- 통발 및 주낙 어선 소유자, 젊은층은 해녀에게 채취권 판매
: 해녀에게 재화 집중

울산 제전마을 돌미역 구매한 중개상인



서문시장에서 대표상품인 울산 돌미역



삼척 갈남마을 건조 돌미역 포장



삼척 갈남마을 돌미역 판매



미역바위 청소

기세작업

- 돌메기, 돌깎기, 개닦기, 바당풀내기
- 미역포자의 안착이 쉽고, 뿌리의 부착력을 강화하여 파도에 미역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작업

쫄쫄이 미역권과 펄 미역권

- 쫄쫄이 미역과 펄 미역의 명확한 구분은 없음.
- 줄기가 길고, 앞과 줄기의 폭이 좁고 두꺼운 울산의 쫄쫄이 미역의 기준.
- 경주, 포항으로 올라가면서 펄 미역의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다가 영덕, 울진을 기점으로 펄 미역권.
- 경계점에 있는 경주, 포항의 어민들이 쫄쫄이 미역과 펄 미역에 민감함.
울산의 쫄쫄이 미역이 고가에 판매되고 있고, 판로가 개척되어 있음을 부러워함.

울산 제전마을의 쫄쫄이미역



삼척 갈남마을의 펄미역



쫄쫄이 미역권

- 주로 울산, 기장, 경주, 포항 등
- 기세작업에 힘을 기울임
- 동지를 전후로 시작해서 10 내외로 작업함
- 울산 제전마을은 기세작업에 참여하는 해녀 50~60명(타지 해녀 포함)
- 해녀, 식사 준비하는 사람, 호미 가는 사람, 7척의 운반선 등 하루 동원인원 90명~100명

2016년도 제전마을 기세작업 상황

	미역 바위 명칭	괏암주	해녀 수
1	소고동+잔창1,2	12명	제전마을 해녀 3명, 타지 해녀 11명
2	배돌+중도암	11명	제전마을 해녀 3명, 스킨스쿠버가 작업
3	단치암+금도기	6명	제전마을 해녀 2명, 타지 해녀 5명
4	옥수방	8명	제전마을 해녀 1명, 타지 해녀 8명
5	대청방	8명	제전마을 해녀 1명, 타지 해녀 9명

- 배돌+중도암에서 처음으로 스킨스쿠버를 투입함
- 해녀의 노령화, 인건비 과다지출 등으로 꾸준히 건의 되었지만 다수의 반대로 무산되었음

스킨스쿠버 투입 결과 : 60% 경비 절감 효과

그럼에도 스킨스쿠버 투입을 주저하는 이유는?

1.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한 해녀의 반대
2. 미역바위 주인 다수 반대 : 경비지출의 주체이면서 기세작업에 참여하여 수익 창출
 - 호미날 가는 사람, 밥하는 사람, 작업선 운행하는 사람으로 참여
 - 수요에 비해 노동력 과잉 공급으로 비효율적인 것은 사실
 - 기세작업에 지출되는 1억원이 마을 내에서 순환되면서 재분배 되는 구조임
 - 그러나 스킨스쿠버가 투입되면 이러한 재화의 순환구조가 깨지는 것을 알고 있기에 반대함

노동력 과잉 투입 이유?

- 비효율적인 작업 방식 그럼에도 채취작업, 기세작업에 어촌계원이 골고루 참여함으로써 지출과 소득이 마을 내에서 순환하는 구조 (공동체 가치 우선)

울산 제전마을의 기세 작업

- 목적 : 미역 포자의 안착 성공률 상승과 미역 뿌리 부착력 강화
- 시기 : 입동을 전후로 15일(1개월) 중 날씨 좋은 날 10일 내외
- 어촌계원 1인당 210만원씩 각출하여 기세작업 비용 충당
- 작업 인원 : 해녀 70여 명(인근 마을 해녀 50여 명 동원)
- 현대중공업, 미포조선, 온산공단 등으로 보상을 받고 이주한 방어진, 서생, 전하, 남목 등의 해녀들이 각 마을의 기세작업에 동원됨

기세작업 하는 해녀와 손잡이돌



펼 미역권

- 기세작업에 관심이 적음
- 주로 수심이 얇은 곳에서 즐기세 작업,
- 울산 제전마을과 같이 50~60명 해녀가 투입되어 1억원 이상 지출하는 대대적인 기세작업은 하지 않음

이유는?

1. 수심이 깊음
2. 펼 미역이기에 기세작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높지 않음
3. 강원도는 동원할 해녀가 상대적으로 적음

울산 제전마을 : 공동채취, 공동건조, 공동판매

삼척 갈남마을 : 공동채취, 개별건조, 개별판매

울산 제전마을(인공건조)

- 장점 : 날씨의 적음, 상품성 균등, 시간 단축
- 단점 : 건축비용, 유류비 등 지출

삼척 갈남마을(자연건조)

- 장점 : 비용 절감
- 단점 : 날씨의 영향 절대적, 상품성 저하, 장시간 필요

울산 제전마을 : 쫄쫄이 미역권 - 대대적인 기세작업

삼척 갈남마을 : 펼 미역권 - 형식적인 즐기세작업

울산 제전마을 : 돌미역 작업 방식이 비효율적이지만 재화의 순환구조

삼척 갈남마을 : 돌미역 작업 방식이 효율적이지만 재화의 독점구조

제주 출항해녀의 의미

- 일제강점기, 6,70년대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출항해녀
- 해녀문화의 확장
- 현재까지 동해·남해·서해안 해산물 채취의 주역(한반도 어촌변화의 주역)
- 출항해녀는 제주해녀 역사

해녀의 입어 형태

- 동해안 : 어촌계와의 입어로 조정
- 남·서해안 : 선주가 마을어장 임대계약 후 해녀 고용형태

해녀의 감소

- 특히 강원도의 해녀(247명) 감소는 심각함
: 수심이 깊어서 해녀 배출이 어려움

육지해녀 이야기



울산의 육당 해녀들



물질 나가는 해녀



구제작업

미역채취 작업 전과 전복 종패 뿌리기 전에 군소와 불가사리, 성게 등을 잡아내는 작업을 함



구제 작업으로 잡은 성게와 군소



잠수만 하는 건 아님-툇 채취 장면



헛물질(헛무레질)하는 해녀



울산 해녀의 채취한 해삼



우뚝가사리 묵





우뭇가사리 불리기



우뭇가사리 콩국



보라성게알 국수

- 보라성게 : 5월말이 제철
- 특별한 양념 없이 육수에 간장과 생
게알로 요리



삶의 양상을 기록하는 일은 대중에게 역사의 발언권을 주는 일이다. 현장 기록은 사실을 엮어 만든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이므로 삶의 현장 깊숙이 들어가서 오랜 시간 참여하고 관찰하려 한다. 삼척과 울산 어촌에서 주민들과 사계절을 함께 생활하며 해양문화를 조사한 적이 있다. 두 마을의 가장 중요한 생업이 돌미역 생산이라는 점과 해녀가 돌미역 채취를 도맡는다는 점이 같았다. 해녀 계통은 다르다. 삼척 갈남마을 해녀는 제주도에서 이주했다. 울산 제전마을에는 바깥물질 온 제주 해녀를 보고 배운 자생 해녀 집단이 있다.



김창일 국립제주박물관 학예연구사

제주 소재 언론사 초청으로 동해안 해녀에 대해 발표한 적이 있다. 질의응답 시간에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객석에 앉아 있던 제주 주민이 발표 내용에 감정이 이입돼 격양된 목소리로 화를 내기 시작했다. 그는 ‘해녀가 어촌계에 입어료를 지불하는 육지 어촌의 관행은 부당하다. 이는 육지로 이주한 제주 해녀의 노동력을 갈취하는 행위’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시간이 촉박해 차분히 설명할 수 없어서 아쉬웠다. 이미 100년 전부터 이런 갈등은 동해안 어촌 곳곳에서 발생했다.

일제강점기에 제주 해녀들은 육지 해안으로 바깥물질을 다녔다. 이 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했다. 1921년 3월 19일 동아일보 ‘해녀문제해결호’에서 단면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에서는 해녀가 있어서 해마다 경상남도 울산, 장승포에 나와서 옷을 벗고 바닷속으로 들어가 해조와 전복 등을 따는 사람이 4000명 이상이라. ... 그들이 버는 금액이 수백만 원에 달하는데 울산 장승포 등지에 있는 지방 인민은 남의 지방에 와서 이와 같이 무수한 수산품을 가져가서는 안 되겠다 하여, 해녀와 그 지방 인민 사이에 서로 분쟁이 있음으로 당국이 조정하여 해녀는 그 지방 인민에게 입어료라는 것을 바치고 이것만은 무사히 해결되었으나...” 수많은 제주 해녀들이 물려와 해산물을 채취하자 지역민 불만이 증폭됐고, 이에 해산물 채취 대가를 지불했다는 내용이다.

광복 후에도 갈등이 잦아들지 않자 1952년 수산업법에 ‘입어관행보호법’이 제정됐으나 충돌은 이어졌다. 입어료, 위판 수수료 등 명목으로 채취한 해산물에 일정한 요금을 매겼다. 해녀들은 이를 과도한 수탈로 봤고, 해당 어촌 주민은 자신들의 바다에서 채취한 것이기에 당연한 권리라 여겼다. 1962년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돼 어촌계로 연안어장 관리 권한이 위임됐다. 이로써 어촌계가 합법적으로 지선어장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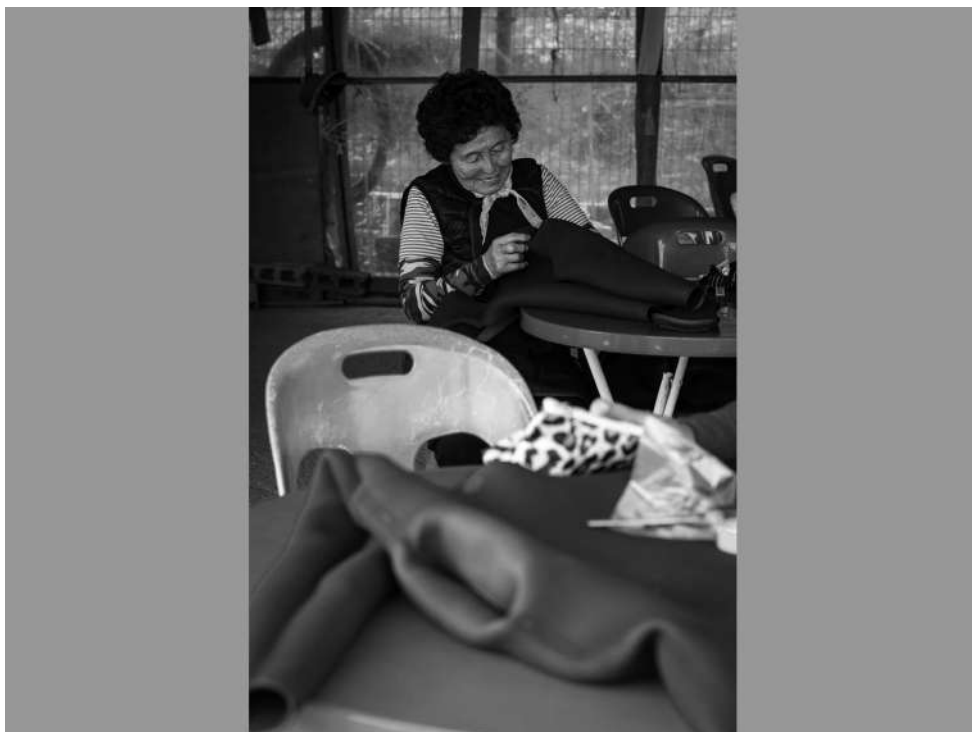
현재 대부분 어촌계는 어민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해 운영하고 있다. 동해안에서 해녀는 이제 약자가 아니라 어촌계 의사결정에 중심 역할을 한다. 삼척 갈남마을과 울산 제전마을은 해녀가 어촌계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다시피 하고 있다. 제주에서 해녀 3600여 명이 활동하는데 육지 해안도 엇비슷한 수의 해녀가 물질을 하고 있다. 물 해안에서 제주 해녀는 특전히 뿌리내렸다. 개별 어촌 상황과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더 이상 피해 의식을 가진 필요가 없다는 말을 늦게나마 지난번 첫죽에게 전하고 싶다.

행복한 인어들

(기록)

탈의실에 모여 있는 송도해녀





가덕도록 원정물질 온 영도 출항해녀





난바르(원정물질)은 작업선을 타고 섬으로 이동함



설 전에는 돌미역 채취에 집중 : 남해안의 특징



행복한 해녀들의 쉬는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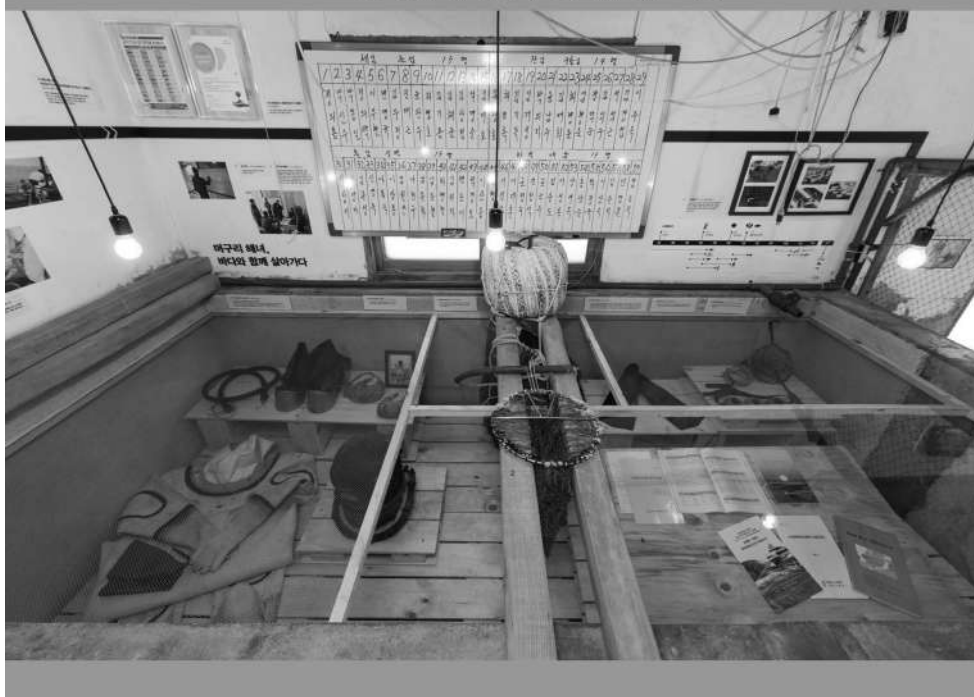


행복한 인어들



어떤 마을기록관을 꿈꾸는가?

마을 생업(머구리, 해녀, 미역바위 추첨 보드판)



마을박물관 내부



전시시공업체 용역으로 만든 영도 동삼동 해녀 전시관



영도 갯강이에술마을 전시관 내부



동삼동 해녀 전시관



해설사 열정으로 지속시킨 삼척갈남마을박물관



영도 강강이예술마을 전시관



이 시간을 통해서

정답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다.

현장과 당당히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조사하고 기록하기를 바란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끝나지 않을 고민은 현장 기록자의宿命**

**삶의 현장을 기록하는 일은
대중에게 역사의 발언권을 주는 일이다.**



제2기 제주학 ‘시민 아키비스트’ 심화과정

탐라의 역사·문화·삶을 기록할
‘시민 아키비스트’
전문인력 양성



제주4·3기록 발굴과 보존, 활용

양정심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제주4·3기록 발굴과 보존, 활용



양정심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1. 제주4·3 기록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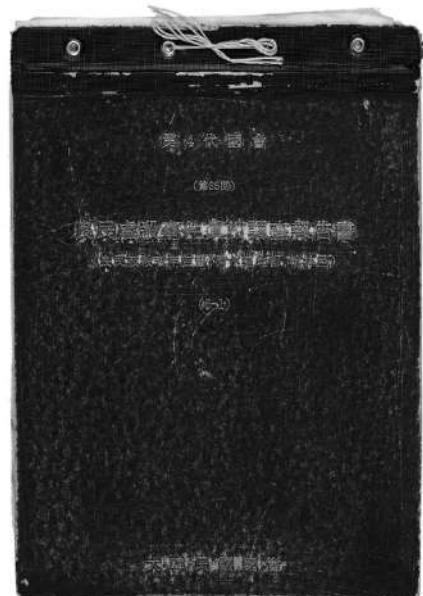
제주4·3사건 기록물은

“세계적 냉전과 한반도 분단이라는 국내외
정세에서 국가폭력에 의해 동아시아의 작은 섬
제주도 주민들이 집단희생된 비극을 극복하고,
‘진실, 화해, 상생’을 이루어낸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 사진, 영상 등의 자료를 총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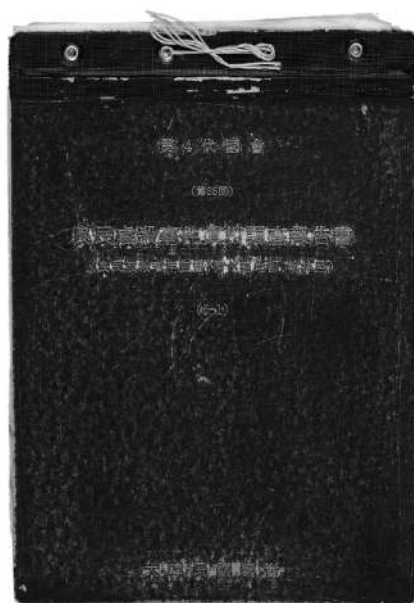
제주 4·3사건 기록은
‘사건 당시’와 ‘사건 이후’
진상규명운동과 화해·상생의 해결
과정을 아우른다.

2. 기록물 발굴

▶ 1960년 4·19혁명 직후
진상규명운동 기록이 생산됨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



▶ 1960년 4·19혁명 직후
진상규명운동 기록이 생산됨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



▶ 4·3은 말한다 (제민일보4·3취재반, 1990~)



양조훈 기자

3인 고문치사사건 증언채록



김종민 기자

「4·3」특별취재반

- | | | | | | | | |
|------------|------------|---------------|---------------|---------------|---------------|--------------|--------------|
| △吳吉昌
기자 | △白承勳
기자 | △趙孟洙
지방부차장 | △秦性範
사회부차장 | △高弘哲
정경부차장 | △夫榮柱
정경부차장 | △徐在哲
사진부장 | △梁祚勳
정경부장 |
| △左承勳
기자 | △李賢模
기자 | △金鍾受
기자 | △金範範
기자 | △金承範
기자 | △高正雄
기자 | △高斗成
기자 | |

▶ 제주시의회 4·3피해신고서(1995)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진상조사보고서 확정과 대통령의 사과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



▶ 4·3위원회의 진상조사(2000~2003)

- 국내, 일본, 미국, 러시아 자료 수집
- 11권의 자료집
- 증언자료
- 진상조사보고서

▶ 군법회의 수형인명부(1948/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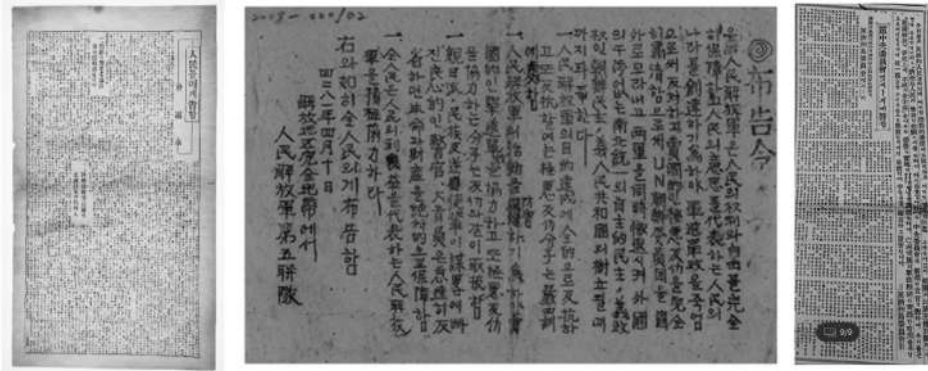


▶ 정부 문서

*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 선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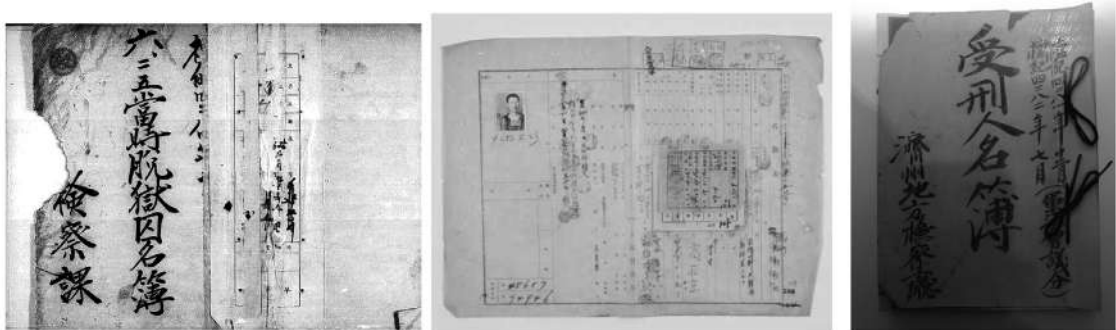


▶ 무장대측 자료



무장대 봉기 과정 및 관련자 배경 등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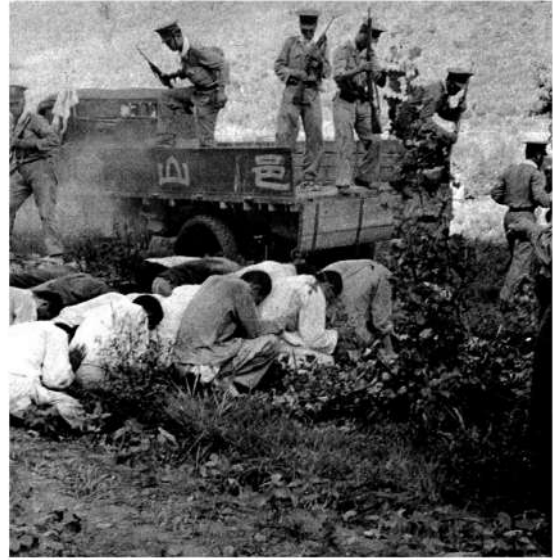
▶ 행정자료



4·3당시 일반/군사 재판과 관련된 국가판결문·수형인명부 등

‘국가폭력’ 기록

- 토벌대와 무장대 활동 기록
- 미군정, 미군사고문단
- 계엄령 등 정부기록
- 수형인 명부 등 행형기록



‘진상규명’ 기록

- 1960년 국회 양민학살보고서
- 1980년대 진상규명운동
- 1994년 도의회 피해신고
- 2001년~ 4·3위원회
4·3희생자 심의·결정요청서
- 2003년 진상조사보고서 확정
대통령 사과
- 2014년 국가기념일 지정
- 2021년 특별법 전부개정



‘화해·상생’ 기록

- 과거의 아픔을 딛고 화해와 상생을 위한 노력의 기록
- 합동위령제, 영모원
- 경우회-유족회 화해선언



▶ 기록물 추가 수집 (2019~)



b. Communist trained agents are highly organized on the island and Colonel Brown estimates that about 80% of the population are connected or adhere to the Communist set up through fear. Each village has a Communist cell and unless the inhabitants do as directed, they are shot, or beaten, or their homes are burned. Colonel Brown is of the opinion that the organization of the island has been effected by the South Korean Labor Party. Except for few agents sent in from China, or Manchuria, or North Korea, most of the raiders were trained natives. Few arms and a very little equipment have been found that could not have been obtained on the Island from old Japanese, American sources, or locally made.



3. 기록물 보존

- 4·3 아카이브 고도화
- 제주4·3평화기념관 수장고



문서, 기사, 사진, 지도 등
5만 여건

4. 4·3기록의 활용

- 국가의 공식조사와 진상규명, 명예회복을 이끌어냄
- 4·3의 보편적 가치를 인류와 함께 공유
- 4·3의 의미를 미래세대에 전승
- 4·3의 세계화 확장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평화’의 기록 - 국제 교류 협력



4·3의 진실과 이후 화해 상생 운동을 국외에 알리고
해당 국가의 활동가들과 연대하는 과정을 담은 자료

5. 나가며 - 제주4·3기록의 중요성

- 세계적 ‘냉전’과 한반도 ‘분단’이 남긴 역사의 기억 사건의 원인, 전개, 결과 뿐 아니라, 도민과 유족의 노력으로 성취한 해결에 대한 총체적 기록물
- 진상규명, 정부의 사과, 명예회복, 희생자 보상금 지급에 이르는 과거사 해결의 모범적인 수순을 밟은 자발적인 시민사회운동의 기록
- 도민과 유족의 자발적인 화해, 상생 운동으로 과거사 해결의 모범적인 사례로 자리매김
-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근간에는 4·3기록이 존재

제2기 제주학 ‘시민 아키비스트’ 심화과정

탐라의 역사·문화·삶을 기록할
‘시민 아키비스트’
전문인력 양성



지역사 관점에서 영상기록과 활용

김동만
한라대학교 교수



프롤로그 : 임강지미(臨江之樂)의 교훈



1. 문자 VS 영상



V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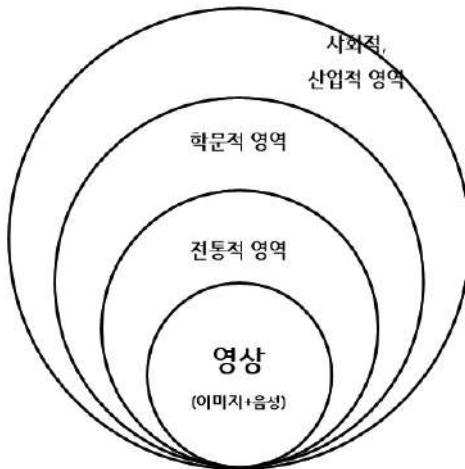


말이나 소리, 시각현상을 표현하는 기호체계

이미지 및 음성기술을 이용하여 인간의 지각이나 사고를 표현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며 이를 기록하는 기술체계

구 분	문자기록	영상기록
기록체계	문자기호	이미지+음성+문자
목 적	인간의 지각, 사고 표현 커뮤니케이션 수단 기록의 수단	인간의 지각, 사고 표현 커뮤니케이션 수단 기록의 수단
특징	간단한 필기도구 단순 기술, 보편적 활용 단순정보	복잡한 전자 장비 전문기술, 특수적 활용 복합정보, 빅 데이터
발전단계	진화의 문화	지속적 진화

2 영상의 영역의 확산



1) 전통적 영상 영역

→ 영화, 방송, 뉴미디어, 영상예술 등

2) 학문적 영역

→ 영상역사학, 영상사회학, 영상민속학, 영상고고학, 영상공학, 영상의학 등으로 확대 추세

3) 사회적, 산업적 영역

→ 문화, 지식, 교육, 학문, 언론, 예술, 건설, 의료, 교통 등 사회 및 산업 전 분야로의 확산

3. 조선 왕조 실록 VS 대한뉴스



조선 태조로부터 철종에 이르기까지 25대 472년간의 역사를 편년체(編年體)로 기록한 책 (1893권)

VS



대한뉴스는 1953년부터 1994년까지 40년에 걸쳐 총 2040호가 제작

1) 영상 역사학

전통적인 역사학이 문자기록에 근거 하여 문자로 구현 되는 역사물을 주된 청중 및 활용 대상으로 했다면 영상역사학은 '구술 영상'이나 '영상기록'을 통한 역사의 재현의 관점

2) 득정한 경험을 기록하는 매체

- 영상 자료 시각, 청각적 전달, 문자로 전달되지 않는 분위기 및 이미지 전달
- 역사의 기록 뿐만 아니라 문화, 사회 등의 일상사를 포함하는 빅 데이터

3) 역사의 타임캡슐

- 문자로 기록된 일상사와는 다른 기능을 가졌지만 과거의 사건을 기록한 영상자료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시각적으로 현재에 보다 생생하게 보여주는 타임캡슐과 같은 것

4. 역사의 증거이자, 일상사의 재현에 있어 영상자료의 가치



1945년 제주에서의 일본군 무기 처리



대한뉴스 - 제주영화 (1962)

1) 구술사

- 영상기록은 특정의 역사와 현황을 전하는 역사의 증거자료로서 가치를 지님.
- 영상1) 1945년 제주의 일본군의 전차와 전두기들은 치열한 전쟁의 증거를 보여줌.

2) 잃어버린 일상사의 재현

- 영상자료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일상사의 재현을 가능케 함.
- 영상2) 지금은 사라져 볼 수 없는 불치(환세치)잡이 장면을 통해 당시의 여업의 일상사를 재현 가능함.

3) 참고자료 (참고)

- 역사재현에 있어 영상자료의 해석과 활용에 관한 연구 (2004)
- 대한뉴스의 제주영상기록에 대한 고찰 (2004, 달라문화 37호)

5. 구술사에서의 기록매체의 변화



1) 구술사 (oral history)

- 개인이 기억하는 과거 사건과 행위, 그에 대한 기억을 음성구술을 통해 기록으로 재록하는 사료수집방법이자 구술기록을 토대로 과거를 연구하는 방법론
- 문서 기록에 의존하던 전통적인 역사사료의 범위를 일반 대중의 체험과 기억을 역사 담론으로 끌어냄.

2) 영상기록은 메모와 음성녹음의 한계를 극복하는 진화된 기록매체

- 언어(음성) + 비언어 (표정, 몸짓, 분위기)를 동시에 기록하는 종합정보 기록 매체
- 문자화 될 수 없는 언어도 중요한 의사표현이고 커뮤니케이션 수단임

3) 영상기록은 문자로 변환 없이 최종단계가 가능한

- 녹취 기능으로만 활용하는 것은 영상기록을 50%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
- 고급 영상기록은 그 자체로 활용가능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자 고급 기록임

6. 구술사에서의 영상 기록의 생산



7. 조선 무속연구 VS 제주본국 영상기록(KBS)



1. 구술기록 초창기 구술기록 문헌자료 - 조선무속연구

일본인 아카마쓰와 아키바는 <조선무속연구> 삼권 자료편에 서귀포 남무 박봉춘 옹의 구술본으로 제주도 신가 16편의 본풀이를 기록하고 있음. (1937년 발간)

2. 국내 구술사 기록의 정점 - 제주본국 영상기록

KBS에 의해 15일간 재현된 제주본국의 디지털 영상기록으로써 130시간, 86장의 DVD기록으로써 영상기록의 기술, 매체, 장비, 영상민속학의 관점에서 등에서 국내 구술사 기록의 정점으로 평가 받을만함.

8.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은 국내 구술사의 모범적 사례



1) 제주도 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1963)-김봉현, 김민주
일본에 건너간 제주출신들을 일일이 만나 증언을 채득, 이를 정리한 구술사

2) 금기의 역사 - 제주에서 구술사로 도전하다

제주 4.3연구소의 <이제사 말해주다>, <4.3장점> 등은 구술사 방법론을 통한 금기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도전

3) 제민일보, 제주 MBC 구술사 연재로 역사를 다시 쓰다.

1989년 제주신문 <4.3의 증언>으로 시작된 제민일보 <4.3은 말한다>는 구술사 방법론으로 4.3 연재를 통한 역사 다시 쓰기. 1989년 제주 MBC <4.3기획-현대사의 큰 상처> 리포터 연재를 시작으로 4.3영상증언 140여편의 방송은 영상 구술사의 분야 특보적 사례.

4) 국가차원의 진상보고서 구술사로 완성하다.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2003) 부족한 역사기록을 민중들의 기억의 파편을 모아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국가의 공식보고서로 채택되었음.

- 구술사의 특징 : 기억의 역사화, 지배자가 아닌 민중성, 금기의 역사의 해방, 스스로의 구술, 구술을 통한 치유, 국가 공식역사로의 위상 => 구술사의 방법론의 모범적 사례

9. 구술 영상을 통한 다큐멘터리 제작



- 1) 다큐멘터리 - “쇼아” 영상 구술사의 가치 확산
클로드 랑즈만 감독이 유대인 학살을 다룬 다큐멘터리
“쇼아”(1985, 556분) 전세계 독립다큐멘터리 감독들에게
영상구술사의 가치 확산.
- 인터뷰만으로 영상 구성



- 2) “다랑쉬굴의 슬픈노래”(1992)
1991년 4.3 증언채득의 현장에서 다랑쉬굴을 발견하다.
다랑쉬굴 43희생자의 유골발굴과정과 처리과정을 담은 영상
관광비디오 편집실에 몰래 숨어 들어가 만든 영상
- 제주 최초의 독립 영화(?)



- 3) 잠든 수 없는 함성, 제주 4.3항쟁 (1995)
영상증언을 모아 민중항쟁의 시각에서 4.3을 다큐멘터리 제작
전국대학가 5.18영상과 함께 필수 관람 영상
배포자, 상영자 국보법 위반 사례 수권 발생
- 4) 4.3의 상처- 기억, 트라우마, 해원
4.3 추모 장애인들의 개인사들 통한 접근
1997 - 본품이
1998 - 무명천 할머니
1999 - 유언

10. 구술사를 통한 치유의 가능성 - 4.3증언 본품이 마당



- 1) 4.3 구술증언 - 공개장소에서 해방하다.
- 2001년 4.3예술제 ‘4.3증언 본품이’ 개최
- 4.3연구소 16년간 ‘4.3증언 본품이 마당’ 추진



- 2) 4.3 본품이
- ‘본(本)을 품다’라는 뜻으로, 제주 곳의 제차 중 신의
내력담을 무가로 풀어짐.
- 말할 수 없었던 4.3의 아픈 기억을 공개장소에서 이야기
함으로써 스스로 아픈 기억을 풀어냄.
- 3) 억압된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억으로의 전환
“아이고~ 고를 말 고라지란 이제 살아지려”
- 4) ‘배제 당한 타자’로 부터 ‘스스로’라는 주체적 자위부여
“나가 곧 고름데로 고라도 되자랑”
- 5) 개인을 넘어 사회적 해방의 성격
“내가 어떻게 살아신디 알아 지루평”

11. 영상기록의 중요성 - 몸의 증언

"역사는 스토리(story)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image)로 설명된다."
(History does not break down into stories but into images) - Walter Benjamin

구술 증언

- 구술(언어, 유사언어)
- 제주 4.3 역사재구성의 주요방법
- 텍스트 중심의 역사재현
- 상상적 역사구성의 한계

몸의 증언

- 구술(언어, 유사언어)
- 몸의 상처(증거)+몸짓+표정+외형
- 이미지 중심의 역사재현
- 다양한 의미의 기능, 종합적 상상력을 통한 역사진실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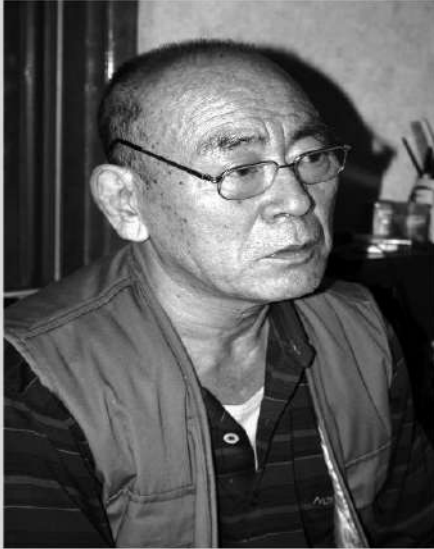


이미지를 통한 역사재현

사회적 의제 형성 -> 국가/지방정부 수용 -> 치료, 생활, 경제적 지원



역사라는 잔인한 인간의 시간은 삭제되고
망각되어지는 이후의 시간을 예견이나 한 듯
인간의 몸통아리를 타임캡슐로 하여서라도
잔혹한 자신의 역사, 그 내력담을
후세의 벌건 천지에 내어 놓는다. 이렇게...



김만오 (金萬五)

남, 1932년 생,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피해사실 : 1948년 11월 4일 집 마당에서
군인이 쏜 총에 우측 엉덩이 관통

장애상태 : 우측 고관절부 관통상으로
관절염 및 전골부 연부조직
결손, 거동 불편

“ 어머니가 총을 맞았는지 얼굴에 피투성이가 돼 가지고 들어오는데, 나는 어머니를
와락 안았습니다. 그러더니 그냥 뒤에서 총을 쏘는 겁니다. 총 한 방에 모자간이 다
죽어버리라고. 오래 누워 살다보니 욕창으로 살이 썩어서 지금까지도 영 치통뼈가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연고만 계속해서 바르고 있습니다.”



문춘

여, 1925년 생, 제주도 제주시 연동

피해사실 : 강제결혼
구타와 고문 피해.

장애상황 : 강제결혼으로 전신피해
구타와 고문으로 후유 장애

“지서 안에서 특공대 20여명이 웅덩이로 마구 때리고 군화발로 짓밟았습니다.
그 후에 하귀 지서 순경이 같이 살지 않으면 오빠를 죽여 버린다고 해서 끌려가서 작은
부인으로 살아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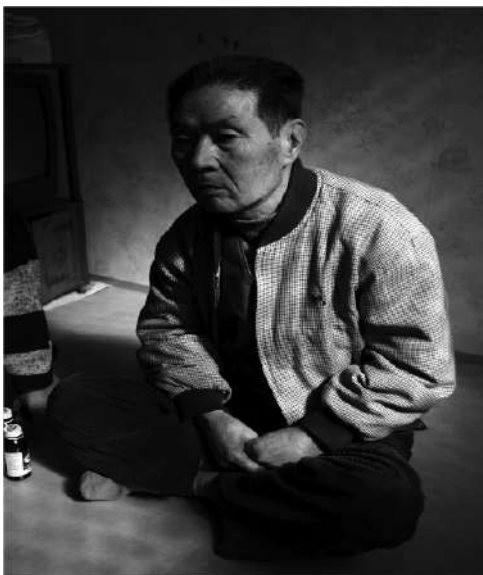
이○○

여, 1921년생, 제주도

피해사실 : 성폭행

장애상황 : 정신적 피해

“어느 날인가 나를 데리러 밤에 집으로 왔었습니다. 죽여버리겠다는 말에 반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북청년이 보조서는 곳에 세 살된 아기 데리고 갔다 왔습니다. 누우라고 하니까 누웠는데, 그때 당했습니다. ”



김종원(金宗元)

남, 1935년 생, 서귀포시 강정동

피해사실 : 군 토벌대에 의해 일가족 15명
희생, 그로 인한 정신충격

장애상태 : 신경성 우울증 노이로제,
정신장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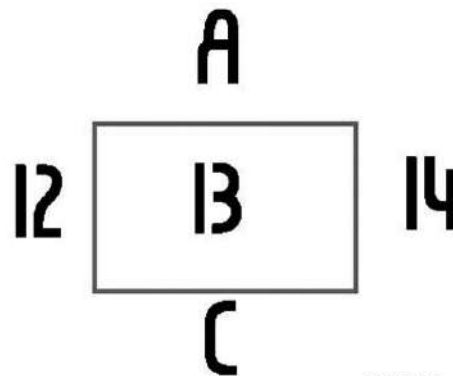
“ 그 옛날 산에서 부모 형제 다 쓰러지고 나 혼자만 이렇게 살아오면서 자꾸 그때 생각만 나면서 영 잊혀지질 않고 잠을 못 잡니다. 서울 병원에 가니까, ‘신경성 우울증 노이로제’로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 후로 신경과를 한이십년 다니고 있는데, 약을 안 먹으면 당시 피신 다니던 시절만 생각나고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

12. 구술사 기록 - 영상 이론과 기술의 성패를 좌우한다



- | | |
|-----------------------------|-----------------|
| 1) 글쓰기 책은 낱도 영상촬영 책은 못 읽었다. | 그렇다 5, 3, 1 아니다 |
| 2) 구술사 책의 방식으로 녹음, 영상 기록한다 | 그렇다 5, 3, 1 아니다 |
| 3) 영상 인터뷰 기법은 배운 적이 없다 | 그렇다 5, 3, 1 아니다 |
| 4) 촬영시 이어폰을 착용하지 않는다. | 그렇다 5, 3, 1 아니다 |
| 5) 촬영시 별도 마이크를 쓰지 않는다. | 그렇다 5, 3, 1 아니다 |

13. 프레임과 영상기록



- * 프레임
- 어떤 구술을 끌어 낼 것인가
- 역사를 보는 사관
- 세상을 향한 마인드
- 세상을 제한하는 눈

14. 구술 영상자료의 다양성



15. 구술 영상기록의 인터뷰

“ 인터뷰자가 어떻게 기억의 입술을 열고 여성의
신으로 하여금 전설을 토로하게 만들수 있는가? ”



* 인터뷰

- 수 많은 기억 속에 극히 일부를 선택적으로 끌어내는 것

- 1) 훌륭한 인터뷰는 인터뷰 대상자 선정에 달려있다.
- 2) 빈틈없는 사전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
- 3) 답변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경청, 침묵까지 견디는 인내
- 4) 인간적 측면에 주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5) 인터뷰 대상자의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 6) 유대감과 호의적 태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 7) 난처한 질문도 거침없이 던질 수 있어야 한다.
- 8) 질문을 특정 답변으로 유도하지 말 것
- 9) 인터뷰 대상자의 말을 가로막지 말 것
- 10) 자신의 명석함을 과시하면 부작용이 많다.
- 11) 인터뷰 대상의 성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야
 - 침묵형 : 말이 별로 없거나 거부감 있는 대상자
-> 우회하여 대화 속으로 끌어 들여야 한다.
 - 다변형 : 만나자마자 말이 줄줄 흘러나오는 대상자
-> 이야기 방향 제시 만으로도 충분하다
 - 질문형 : 오히려 인터뷰하려는 대상자
-> 차라리 역할을 바꾸는 것도 방법이다.

16. 닫힌구조와 열린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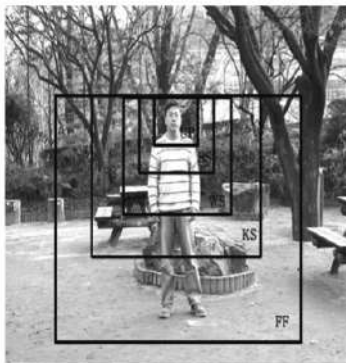


의도적 공간 연출
분위기 연출
표정의 변화, 비언어 중시

연출없는 공간
현장성
텍스트 중심

17. 샷의 사이즈와 문법

영상의 사이즈를 어떻게 할 것인가 ?



상황이나 행동 행위 강조
객관적
공적 내용

감정이나 느낌 강조
주관적
사적 내용



18. 카메라 앵글의 문법

1) 카메라의 앵글 (Camera Angles)이란 카메라와 피사체 사이의 수직, 수평적인 각도의 관계를 의미



부감(high angle) : 상황, 왜소



수평 : 객관적, 동등 지위



앙감(low angle) : 강조, 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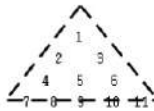


검사 : 활동성, 긴장

19. 카메라와 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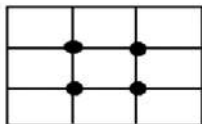
구도의 일반

- 피사체(목적)를 명확하게 보일 것
- 안정감을 줄 것
-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까지 모든 것을 촬영 해 보일 것



삼각구도

이 그림에서 가장 주목도가 높은 곳은 꼭지점 1, 7, 11의 순서가 된다. 삼각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면 안정감을 갖게 된다.



9분할 구도 : 삼등분의 법칙

가로와 세로를 각각 3등분하는 선을 그어 그들이 만나는 교차점들은 관심을 모을 수 있는 가장 적당한 부분이 된다.

20. 카메라와 여백

1) 헤드 룸(head room)

헤드 룸이란? 인물의 머리 상단부와 프레임의 상단 사이의 공간을 뜻한다.



2) 록킹 룸(locking room)

노우즈 룸(nose room) 혹은 아이 룸(eye room)이라고도 부르며, 피사체인 인물의 시선 방향 앞쪽으로 얼마간의 공간을 비워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3) 리드 룸(lead room)

록킹 룸과 같은 이유에서 좌우로 이동하는 피사체나 방향성을 지시하는 동작에 사용한다.



21. 마이크 종류와 선택

1) 구술사 영상기록의 70%는 음성

- 소리가 선명하지 않다.
- 바람소리 등 잡음이 많다.
- 소리가 작게 들린다.
- 소리가 먹먹하거나 찼진다.



22 미장센 분석

미장센 : 무대를 구성하다, 연출을
이민



제2기 제주학 ‘시민 아키비스트’ 심화과정

탐라의 역사·문화·삶을 기록할
‘시민 아키비스트’
전문인력 양성



제주어 구술채록을 활용한 기록의 가치와 실행 방법

김미진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제주어 구술채록을 활용한 기록의 가치와 실행 방법

김미진(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I. 구술 자료의 의의

1. 최첨단 비문맹 시대에 다시 구술!

• 선사시대(구술사): 문자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시대- 구비전승, 구술, 민담, 설화

• 역사시대(문헌사): 문자 발생 이후의 시대

- 기록, 역사서, 문헌자료

- 구술 쇠퇴: 문자의 출현, 종이, 인쇄술의 발달, 실증 사학의 정립

- 실증주의 역사학: "문서 없이는 역사도 없다."

문헌자료만 중요 그 외 자료 가치 폄하

• 현대사회: 최첨단 과학의 시대

- 역사의 주체는 과연 누구인가?

- 역사 연구의 영역과 관심 서술의 대상은 누구인가?

- 구술사의 가치 재검토

- 휴대용 녹음기 등 기술 발달

2. 개념 정의

• 구비 전승: 여러 세대에 걸쳐 말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종교적 주문, 설화, 구비문학

• 구술 증언: 개인의 과거 특정 사건이나 경험을 현재로 불러내어 서술하는 것

-심층면접, 구술사 자료

• 구술 생애사: 한 개인이 태어나면서부터 현재까지 살아온 경험을 현재로 불러내어 서술하는 것

• 구술 자료: 과거에 대한 개인적인 기억들을 말로 표현한 자료

• 질적 연구방법론: 연구 대상이 행위하고 생각하는 일상에 참여하거나 그 일상을 관찰하면서 연구 대상이 갖고 있는 경험 세계와 가치관을 당사자의 주관적 시각으로 이해하는 연구 방식 ↔ 양적 연구방법론

• 구술: 말로 이야기 하는 것

• 구술사: 개인이나 집단의 기억을 구술(口述), 즉 입으로 말하도록 해 역사적 사실로 정리한 것

“기억된 경험”

“문자 헤게모니에 저항하는 대항 담론”

“과거에 대한 개인적인 기억들의 환기와 기록”

“문헌 기록을 남길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재현”

“이제까지 이용되지 않았지만 보존할 가치가 있는 구술을 기록”

3. 우리나라 구술사의 시작

- 뿌리깊은나무 '민중 자서전'시리즈(1981~1992)

-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이름 없는 민중이 입으로 쓴 자서전

-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1985)-5.18 구술 증언 조사

- 이제사 말함수다(1989)-제주4.3 증언 채록 자료집

- 20세기 민중 생활사 연구단(2003~2006)-한국민중구술열전:한국학술진흥재단(영남대, 중앙대, 전북대, 목포대, 한국문화인류학회 등 참여)

- 국립국어원 권역별 지역어 조사(2004~2014)

- 국립국어원 민족생활어 조사(2007~2012)

- 제주어 구술채록 조사사업 (2014~2016) 12개 읍면 3개 마을씩 36개 마을 조사

- 제주어 구술자료 표준어 대역 사업(2017~2020) 표준어 대역 및 주석 작업

4. 구술 조사의 성격

- 구술성-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따라 다름

- 공동성- 구술자와 면담자가 공동참여하는 결과

- 주변성-소외되거나 억압받은 사람들의 기억들을 역사 안으로 인도

- 치유성-침묵의 기억에서 구술자를 해방, 치유

- 다양성-다양한 삶과 문화가 숨쉬는 지방의 역사, 지방 문화 탐구

5. 구술 자료의 한계

- 정확성-기억의 정확성 문제

- 주관성-신뢰성이 떨어짐

- 문헌 자료는 과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가?

- 기존 역사는 엘리트, 지배 계층에 의해 기술

- 대표성-구술자가 그 지역과 시대를 대표하는가?

☞ 구술사 방법론은 완결적이지 않다. 문헌자료에 기반을 둔 이론 틀이 먼저 제시되고 구술사 방법론이 수행되어 보완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II. 지역어의 가치

1. 방언과 사투리

방언: 한 언어에서, 사용 지역 또는 사회 계층에 따라 분화된 말의 체계.

사투리: 표준어가 아닌 것, 해당 언어체계의 일부로 특정 지방에서만 사용되는 말.

지역어: 어떤 한 지역의 말. 방언 구획과는 관계없이 부분적인 어떤 지역의 말.

지역 방언: 지리적 영역이 달라서 언어 차이를 보일 때

사회 방언: 사회적 범주를 달리하여 언어 차가 나타날 때

시간 방언: 시간적 영역을 달리할 때-국어사 연구

2. 방언의 존재 가치

• 언어 다양성

생물종 다양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생태계의 균형과 순조로운 진화의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언어의 진화도 언어의 다양함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언어의 대표와 표준만을 옹호하는 일은 언어의 다양성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이고, 이는 곧 진화에 역행하는 일이다.

• 언어와 정체성

데이비드 크리스털(David Crystal)은 '언어의 죽음(Language Death)'에서 어떤 소수의 언어든, 언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존재가 힘센 언어에 의해 사라져 가는 것은 '비극'을 넘어 '재앙'으로 간주하고 있다. 인류의 삶에는 다양성이 필요하고, 다양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언어는 나름의 정체성을 가져야 자연스럽다. 언어는 역사의 저장고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지식 총량에 기여하기 때문에 어떠한 언어든 사라진다는 것은 인류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의미한다.

• 제주어의 가치: 국어사적 가치, 문화적 가치, 일상적 가치□

3. 방언 조사

• 방언은 구어이며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 숨쉬는 언어

• 방언 연구를 위해서는 조사된 자료의 존재가 필수적

• 이미 조사된 자료 이용, 현지 조사를 통한 자료 확보

4. 조사 방법

• 질문법(설문지법, 면담법): 설문이나 면담을 통해 제보자에게서 직접 자료를 구하는 방법

- 참여 관찰법: 일정한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원으로 참여하면서 관찰을 통해 제보자에게서 자료를 구하는 방법

Ⅲ. 구술 조사의 방법

1. 조사 전: 기획

- 무엇을, 왜, 어떻게 할 것인가?
 - 주제 설정, 조사 목표 설정
 - 조사 지역, 조사 기간, 예산, 조사 인력
- 조사 준비
 - 조사 내용 항목화
 - 질문지 만들기: 질문의 눈높이를 맞춰라
 - 조사 준비물: 녹음기, 비디오카메라, 카메라, 관련 사진, 필기도구 등

2. 조사 실행

- 예비조사
 - 문헌 자료 정보 수집
 - 조사 지역 사전 답사: 마을 현황, 지리 파악
 - 노인회관 방문, 인맥을 통한 소개, 예비 조사자 명단 작성
- 구술자 선정
 - 조사 내용과 목적에 따라 구술자의 조건 결정
 - 정보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함

※ 제주어 조사의 경우

- 나이: 80세 이상
- 출신지: 그 지역의 토박이(부모와 조부모) 타지역에서 생활하지 않은 사람
- 교육 정도: 공식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 그 외: 발음이 정확해야 함,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 본 조사

- 시작할 때 기본 정보 녹음하기, 배경 녹화하기
- 녹음과 녹화는 구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구술자와 신뢰 유지: 시간 약속 엄수
- 편안한 분위기 조성: 구술자의 집
- 잘 듣기, 경청의 자세와 맞장구
- 질문은 한 가지씩, 확인 질문하기, 명확히 하기

-조사 시간

-사례비

• 유의 사항

-유대감(라포)를 형성하라.

-자연스럽게 행동하라.

-제보자의 발화는 무조건 맞다.

-제보자가 침묵을 채우게 하라. 조사자는 가급적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좋다.

-강요하지 마라.

-자신의 편견을 접어라

3. 조사 후

• 자료 정리

-복사본 제작, 파일 내려받기

-면담 일지 작성

-음성 자료 문자화

-하나도 빠짐없이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녹음 내용을 빠짐없이 글로 표현

-들리지 않는 부분 표시, 담화 표지, 감탄사 등 기록

• 편집 하기-다시 쓰기

-구술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는 형태(대화 양식으로 정리)

-해설, 분석이 결합된 형태

-연구자의 문제 의식을 중심으로 구술자료를 활용한 형태-논문

-집단적 생애사 - 비슷한 경험을 공유한 사람의 이야기 형태

※ 제주어 구술 자료의 해석과 분석

-1차 자료는 구술의 원형을 유지

-제주어의 경우 표준어화 작업(각주 작업)

-필요한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 소제목 달기(찾아보기, 사진 등 추가 작업)

-연구 논문의 형태에서 필요한 부분 발췌하여 제시

Ⅲ. 구술 조사의 실제

1. 제주어 구술 채록 조사 사업(2014~2016)

-12개 읍면 3개 마을 선택 36권

•질문지

제1부 구술 1. 조사 마을 2. 제보자 일생 3. 발일 4. 들일 5. 바다일 6. 의생활 7. 식생활 8. 주생활 9. 신앙 10. 세시풍속 11. 놀이 12. 통과예례 13. 민간요법 14. 경험담, 속담, 금기어 듣기	제2부 어휘 1. 인체 2. 육아 3. 친족 4. 의복 5. 음식 6. 가옥 7. 생업 8. 수와 단위 9. 민속 10. 신앙 11. 자연 12. 동물 13. 식물
---	--

제1부 구술 7. 식생활 밥과 국 107001 밥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02 밥쌀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03 보리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04 ‘반지기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05 흰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06 조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07 팔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08 피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09 감저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10 무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11 ‘툇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12 폐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13 국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14 나물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15	콩나물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16	묵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17	콩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18	호박알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19	모자만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20	생선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종류)
107021	미역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22	냉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종류)
107023	성계국, 보말국, 넓패국, 가시리국, 파래국, 물회 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죽류

107024	죽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재료)
107025	흰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26	조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27	팔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28	콩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29	‘메밀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30	녹두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31	닭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32	갱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33	이외에 죽을 해먹었던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평죽, 닭죽 등)

범벅과 수제비

107034	범벅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재료)
107035	수제비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재료)
107036	칼국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치

107037	김치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재료)
107038	배추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39	열무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40	물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41	‘동지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42	무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43	파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44	달래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45	갯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46	부추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47	배추김치와 무김치 담그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젓갈

- 107048 젓갈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107049 자리젓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107051 아간젓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107052 게젓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107053 자리젓과 멀치젓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107054 ‘출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장아찌와 회

- 107055 장아찌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마늘/유/파초/양파/모자반 등)
- 107056 마늘장아찌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107057 회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새끼회, 자리회, 방이회 등)
- 107058 계절에 따른 반찬들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우럭조림, 물웨, 고사리 무침, 호박무침 등)

장 담그기

- 107059 장은 언제 담급니까?
- 107060 장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107061 장 담그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고추장, 된장, 간장 등)
- 107062 메주는 언제, 어떻게 쏘니까?
- 107063 장 담글 때 금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떡류

- 107064 떡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107065 시루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재료/도구/만드는 법/기타)
- 107066 송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재료/도구/만드는 법/기타)
- 107067 ‘빙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재료/도구/만드는 법/기타)
- 107068 ‘상웨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재료/종류/도구/만드는 법/기타)
- 107069 제사 떡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107070 상례 때의 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107071 설기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재료/도구/만드는 법)
- 107072 인절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재료/도구/만드는 법)
- 107073 절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재료/도구/만드는 법)
- 107074 ‘술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재료/도구/만드는 법)
- 107075 옷기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기름떡, 별떡/재료, 도구, 만드는 법)
- 107076 고사나 당에 가지고 가는 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다대 등)
- 107077 굿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107078 이외에 어떤 떡들이 있었고, 언제 떡을 해 먹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소와 고물	
107079	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떡에 따른 소 종류=팥/깨/완두콩/설탕 등)
107080	고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떡에 따른 고물 종류=팥/콩가루 등)
107081	떡에 얹힌 속담이나 금기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107050	밀치젓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별식	
107082	순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과정~이용)
107083	두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과정~이용)
107084	메밀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메밀가루/이용)
107085	‘청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메밀 즙/이용)
107086	미숫가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보리, 콩)
107087	지짐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88	‘오매기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재료/과정 등)
107089	‘선다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재료, 과정 등)
107090	누룩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91	잇 종류와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타	
107092	이외에 이 마을에서 해 먹었던 음식이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2부 어휘		205021	밥술
5. 음식		205022	밥알
주식		205023	끼니
205001	밥	205024	늦다[晚]
205002	쌀	205025	이르다[早]
205003	쌀독	205026	공밥
205004	단다[入]	205027	논다
205005	보리밥	205028	승냥
205006	끓어오르다	205029	화독내
205007	빠다[渴水]	205030	국
205008	조밥	205031	나물국
205009	덜다[減]	205032	콩국
205010	흰밥	205033	춧국
205011	팥밥	205034	냉국
205012	반지기	205035	건더기
205013	고두밥	205036	국물
205014	먹다[食]	205037	굶다[飢]
205015	누룽지	205038	죽
205016	눌은밥	205039	덥다[暑]

• 조사 관련 서류

제주어 구술 채록 조사표

△ 조사지

이 름	조사 지역
조사 기간	

▲ 제보지/보조제보지

이 름	성 별	남성/여성		
나 이	세(월)	세대 거주지		
성 업	학 력			
별 력	경 력			
가족 사항				
선정 과정				
출생 특징				
특기 사항				
조사 내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조사 시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조사 장비	녹음기: _____ 영상 기기: _____			

제주어 구술 채록 자료 활용 동의서

자료의 내용 :

위의 자료의 사용에 대하여, 자료를 주는 이()를 같이 하고, 자료를 받는 이(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를 같이 하여, 같은 술의 이해와 같은 요점에 동의합니다.

1. 술은 같이 제공하는 발화 자료를 제주어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 술은 같이 제공하는 발화 자료를 디지털 자료의 형태로 보존하고자 합니다. 이는 제주의 언어 문화의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자료를 후대에 물려 주기 위함입니다.
3. 술은 순수한 연구나 교육 및 제주어 의식의 고양 등 비상업적인 공공의 목적으로 같이 제공하는 발화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복제, 변형, 배포할 수 있습니다. 단, 이와 달리 상업적인 용도로 복제, 변형,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별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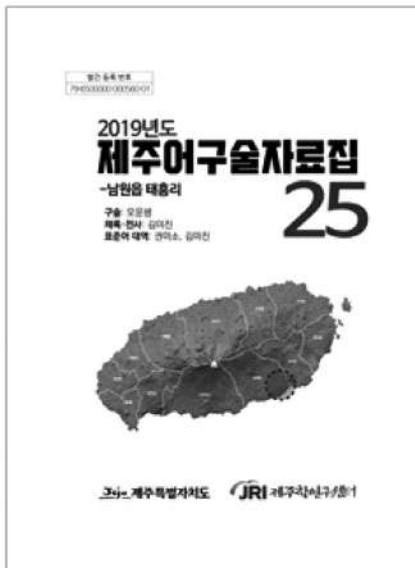
년 월 일

자료 주는 이(갑) 성명 : _____
생년월일 : _____
주소 : _____
서명 _____ (인)

자료 받는 이(을)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주소 : 제주대학교 102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대) 연구원 _____ (인)

2. 제주어 구술 자료 표준어 대역 사업(2017~2019)

-제주학연구센터 홈페이지(제주어자료실/구술자료) 에서 PDF 파일로 볼 수 있음



107017 @ 게민 이제 콩국, 콩국은 어떻게 끌립니까? 나 그거 못 끌렁 맨날 갈갈햄서.(그러면 이제 콩국, 콩국은 어떻게 끓입니까? 나 그거 못 끓여서 맨날 '갈갈'해.)

107017 # 콩국은이, 콩?루 물에 카.(콩국은, 콩가루 물에 타.)

107017 @ 콩?를 물에 카?(콩가루를 물에 타?)

107017 # 언물에 카근에, 물 팔팔 끌릴 때 소로록 허게 비와이. 비왕 확확 젖어볼민 콩국 안 돼어. 가르륵 헤어 비어.(찬물에 타서, 물 팔팔 끌을 때 소르르 하게 부어, 부어서 확확 저어버리면 콩국 안 돼. '가르륵' 해 버려.)

107017 @ 응.(응.)

107017 # 게민, 불 낮은 불 낮근에 그 우트레 이제 소금 솔솔 조금조금 뿌리멍 간 맞춰가멍 부그락하게 꿔듯 젓질 말아. 젓지 말앙 부끔직허건 불 흥쓸 낮추아 불곡, 경행 우썩허게 꿔거들라근에, 폭 솟뚜게 더경 낮두면, 낮다근에 조금 잇당 틈 자건 그때 영 젓으면 콩국이 투박투박투박 헤여이 그땐, 두부국 닳아. 두부 놓앙 끌린 거 닳아. (그러면, 불 낮은 불 낮서 그 위에 이제 소금 솔솔 조금조금 뿌리면서 간 맞춰가면서 '부그락'하게 꿔듯 젓지 마라. 젓지 말고 꿔을 듯하면 불 조금 낮춰 버리고, 그래서 '우썩'하게 꿔거든, 폭 솟뚜겅 덮어서 낮두면, 낮다가 조금 잇다가 뜸들이면 그때 이렇게 저으면 콩국이 '투박투박투박' 해 그땐, 두부국 같아. 두부 낮서 꿔인 거 같아.)

107017 @ 응.(응.)

107017 # 그추룩 허주 콩 굴앙, 물 캥 막 영 젖어볼민.(그렇게 하지, 콩 갈아서, 물 타서 막 이렇게 저어버리면.)

107017 @ 맛엇어, 비려.(맛없어, 비려.)

107017 # 응, 그자 가르륵 헤어.(응, 그저 '가르륵' 해.)

107017 @ 거기 무시거 안 놔? 놔빼나, 무수나?(거기 무엇 안 놔? 무나, 무나?)

107017 # 아, 무슨 놔.(아, 무는 놔.)

107017 @ 아, 무수나 놔물?(아, 무나 나물?)

107017 # 배추 놔도 좋고, 무수 놔도 좋고여, 이건.(배추 놔도 좋고, 무 놔도 좋고야, 이건.)

107017 @ 그거 언제 놔? 놔물이나 그건.(그건 언제 놔? 나물이나 그건.)

107017 # 놔물 먼저 놔놔, 그 우트레 비와 낮근에 흥 번 처암이 놀 때랑 휘허게 흥 번 젓어. 젓어놔, 7만히 놓으면 콩이 영 복삭하게 올라와이.(나물 먼저 놓고 나서, 그 위에 부어 낮서 한 번, 처음에 놓을 때랑 휘하게 한 번, 저어. 저어나서, 가만히 놓으면 콩이 이렇게 '복삭'하게 올라와.)

107017 @ 응.(응.)

107017 # 올라오는 거 자꾸 젖어볼민 가르륵 헤근에 영 콩국 닳지 안허여. 기자 우트레 저 간장이든 게난 아썩 곤 맞형 이 물을 곤 맞추지 말앗당.(올라오는 거 자꾸 저어버리면 '가르륵'해서 이렇게 콩국 같지 않아. 그저 위에 저 간장이든 그러니까 살짝 간 맞춰서 이 물을 간 맞추지 않았다가.)

107017 @ 예.(예.)

107017 # 그 콩국 비와 눈 후제랑 간장이든 소금이든 북삭하게 부껴 붙어 가건 간장이라도 숟가락으로 영 거리명 솔솔 우트레 쪼끔 그 굳에 맞을 만이만 헛다근에 경헛다근에, 숟뚜게 푹 더깁 흥솔 잇다근에 숟뚜게 열어동 영 젓으민 투북투북투북 허여. 그땐 두부국 닳아.(그 콩국 부어 놓은 후에랑 간장이든 소금이든 '북삭'하게 끓여 버려 가면 간장이라도 숟가락으로 이렇게 뜨면서 살살 위에 조금 그 간에 맞을 만큼만 했다가 그렇게 했다가, 솔뚜겅 푹 덮어서 조금 있다가 솔뚜겅 열어두고 이렇게 저으면 '투북투북투북' 해. 그땐 두부국 같아.)

107017 @ 예.(예.)

107017 # 경히는 거지이, 이거 비와 낱 막 젓으카부덴? 이디 사름들도 요새 옛날 어른들도 헐 줄 몰르켜 허명 막 젓어불민 가르륵허여. 그럼 콩국 닳질 안허여, 게난. (그렇게 하는 거지, 이거 부어 놔서 막 저을까봐? 여기 사름들도 요새 옛날 어른들도 할 줄 모르겠다 하면서 막 저어버리면 '가르륵'해. 그럼 콩국 같지 않아, 그러니까.)

107017 @ 맞아.(맞아.)

107017 # 것도 영 젓어불민 갈갈허여.(그것도 이렇게 저어버리면 '갈갈'해.)

107017 @ 그림 한 번도 젓지 말아야 허여?(그림 한 번도 젓지 말아야 해?)

107017 # 젓지 말앙 그자 북삭하게 올라오랑 부글부글 그 궤어가민 알로 물 궤어가민 북삭하게 올라와이.(젓지 말고 그저 '북삭'하게 올라와서 부글부글 그 끓어가면 아래로 물 끓어가면 '북삭'하게 올라와.)

107017 @ 예.(예.)

107017 # 게난 그거 부끄지 못하게, 이놈으 거 쫌물은 가민 와썩 부끄지 안허메.(그러니까 그거 끓지 않게, 이놈의 거 쫌물은 가면 와썩 끓지 않아.)

107017 @ 아.(아.)

107017 # 게난 간장이든 소금이든 그자 우트레 쪼끔쪼끔 뿌리멍 알로 낮은 불로 쪼끔 삶다근에, 굳 맞을 만이 간장이든 소금이든 놔지건 불 톱 꺼둬근에 푹 뚜게 더깁 낮당 흥솔 잇당 영 젓으민 그때 투박투박허여, 그때.(그러니까 간장이든 소금이든 그저 위에 조금조금 뿌리면서 아래로 낮은 불로 조금 삶다가, 간 맞을 만큼 간장이든 소금이든 놓으면 불 톱 꺼두고 푹 뚜겅 덮어서 낮다가 조금 있다가 이렇게 젓으면 그때 '투박투박'해, 그때.)

콩국

젓지 말랑 부글지러진 불 후술 노추아



콩국

'콩국'은 끓는 물에 콩가루와 채소를 넣어 만든 국이다. 제주의 콩국에는 배추나 무를 넣어야 제맛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여름철에 콩을 갈아 만든 콩물에 면을 넣어 콩국수를 만들어 시원하게 먹는다면 제주에서 콩국을 따뜻하게 만들어 먹는 겨울철 별미다. 콩가루를 물에 개어 끓는 물에 붓고 넘치지 않게 불 조절을 해야 한다. 끓여 넘치거나 너무 많이 저어 버리면 제대로 된 콩국을 맛볼 수 없다. 국이 거의 다 될 즈음에 소금으로 간을 하면 콩가루가 덩어리져서 두루치림 통치진다. 두부를 만들 때 소금 물을 간수로 사용하고 콩가루를 얻기 위해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영금유다

08500 콩국물이 콩? 두 물에 타. 연물에 커근에 불 팔팔 끓일 때 소프되게 비치야. 비팔 착할 젓어 불만 콩국 만 때야. 비르특해 비어. 제민 불, 노민 불 다근에 그 무드레 이제 조금 술을 조금조금 뿌리면 간 맛과 거칠 부그리하게 돼. 젓지 말아. 젓지 말랑 부글지러진 불 후술 노추아 물지. 경팔 두박 피게 꺾거들러근에 꼭 솟무에 대일 낮다근에 조금 엷달 물지 건 그대 열 팔오민 콩국이 두박두박해야. 그랜 두박죽 얹어. 두부 놓알 걸린 거 알아. 그루락 허주. 콩? 두 넣 놀가 부면 저 열 젓어 불면 그자 비르특해 비어.

(오른쪽 1932년영 구술)

08500 콩국은 콩가루 물에 타. 연물에 다져 불 팔팔 끓을 때 '소드도'하게 무어. 무어서 확확 저어 버리면 콩국 안 돼. '비르특해' 비어. 그러면 불, 낮은 불 쳐서 그 위로 이제 조금 살살 보글보글 뿌리면서 간 맛과 거칠 '부그리하게' 돼. 젓지 마. 젓지 말고 끓여 넘칠 듯하면 불 조금 낮혀 버리고 그렇게 해서 '두박하게' 끓거는 꼭 솟무에 달아서 낮다가 조금 있다가 뜸 들면 그때 이렇게 되으면 콩국이 '두박두박'해. 그랜 두박죽 같아. 두부 넣어서 끓인 거 같아. 그렇게 하지. 콩가루 넣어서 저어 버릴까 봐 마구 이렇게 저어 버리면 그제 '비르특해' 비어.

구술 속의
제주어

깨다 끓다.
늘다 논다.
비르특하다 갑자기 끓어오르다.
부그리하다 속이 꼭 차지 않고 불룩하게 부풀어 오르다.
부글지러다 끓어 넘칠 듯하다.
소로로 물 등의 액체를 조심스레 붓는 모양.
연물 찬물.
우박하다 갑자기 끓어오르다.
두박두박 두부 따위가 덩어리져서 무르게 굳은 모양.
들 뜸. 음식을 제거나 삶아 익힐 때에, 끓는 액을 가한 뒤 찬물만 두껍을 얹지 않고 그대로 두어 속속들이 잘 익도록 하는 일.
커다 타다. 액체에 소량의 액체나 기포 따위를 넣어 있다.

알아두면
출어마법

'바랭물'과 '머드레물'

콩은 버릴 게 하나도 없다. 초여름에 여민 콩알을 뜬어서 열치갸어나 자리갸에 해서 먹으면 입맛 없던 사람도 밥 한 그릇을 딱딱 비우게 한다. 콩은 달할 것도 없고 콩 껍지와 콩대 물도 소의 먹이가 된다.

콩은 땅의 기운을 북돋기 위해 거름용으로 키우기도 하고, 다른 작물을 파종한 열에 심어 필요할 때 쓰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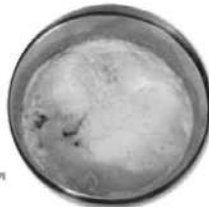
틀바 동부, 콩과의 한해살이 덩굴성 식물.

두물콩 한 해에 두 번 심어 거두는 콩의 한 가지.

머드레물 대추콩, 주된 작물과 열에 들상들상 심은 콩, 달리 '머들물', '고랑물'이라고도 한다.

바랭물 거름용 콩. 땅의 기운을 북돋기 위해 키르는 콩.

보리콩 완두콩.



콩국 물리기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와 제주인의 가치를 드높일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며
‘따뜻한 제주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제2기 제주학 ‘시민 아키비스트’ 심화과정

발행인 김순자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63281 제주시 임항로 278
www.jst.re.kr
발행일 2023년 3월 23일
제작처 한그루 onetreebook.com